(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07 1982년 4월26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April 26,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PR 27 1982

반미(?)성명서 발표후 연행된11명

성직자 모두 석방

검찰, "성직자들 반성했고, 국민단결 위해"

(서울23일=연합) 한국검찰은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소속 11명의 기독교관계자들을 3일만인 23일 전원 석방했다.

김경회 서울지방검찰공안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기독교인사들을 정식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공안부장은 이들이 성명을 통해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사회의 불안을 조성한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과 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나 총화단결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므로 석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구교 연합 선교단체인 선교협의회의 회원 지학순주교(천주교)등 42명은 지난 19일 "미국정부는 한국민의 점증하는 대미국불신감을 직시, 위컴주한미군사령관과 워커 주한미대사를 소환하라"는등 6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한후 검찰조사를 받았었다.

이 협의회는 성명에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반미감정의 구체적 표현이다", "미국민과 같은 우수 민족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미국관리들의 오만한 태도와 1인당 연소득이 1만달러를 넘는 미국민을 위해 소득이 그10분의 1인 한국농민이 희생돼야한다는 경제관계가 시정돼야한다"는 등을 주장했다.

워커대사는 최근 반정부데모학생들을 "버려진 망나니들"이라고 말했고 위컴사령관은 "한국민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위컴사령관은 그후 이같은 발언을 부인했다.

석방인사는 김승훈 신부(동대문 성당 주임신부), 박형규 목사(기독교장로회), 박홍신부(서강대신부), 정상복목사(한국기독학생총연맹총무), 조지송목사(선교협부회장), 권호경목사, 재정구목사, 허병섭목사, 천영초씨외 2명이다.

김공안부장은 기독교인사들의 정치적 성명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한국헌법에 위배된 위헌적 처사로 성명서작성에 가담한 성직자들은 진보적 신학파임을 내세워 진보적 사회활동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그들이 내세우는 사회·정치구조는 현 헌법체재와는 모순된다고 말했다.

이들 성명발표성직자들이 부산및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정당화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배되며,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손상이 올 경우 북한에 이롭게 될 것이라고 김부장은 주장했다.

소환됐다 석방된 사람중 박홍신부는 상오8시 재직중인 서강대에서 소환됐으며, 박형규목사는 상오 10시께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임의 동행형식으로 연행됐었다.

◆25일부터 실시된 섬머타임에 따라 이날 새벽2시가 3시로 1시간 앞당겨 졌다.

25일부터 섬머타임

새벽 2시를 3시로…1시간빨라져

섬머타임이 25일(일) 새벽2시를 기하여 실시됐다.

이날부터 새벽2시가 새벽3시로 1시간이 빨라졌다.

섬머타임은 4월 마지막 주일에서 시작 10월 마지막주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한국과 토론토간의 시차는 한국이 13시간 앞섰다.(뱅쿠버는 토론토보다 3시간, 에드몬톤·칼가리·위니펙은 2시간 늦다.)

◆수백명의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드몬톤의 청년 로만·코야니욱(26)군이 11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9일 다운타운 라마다·인에서 투신자살한 로만군은 평소에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것 이외에는 뚜렷한 자살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6일부터 동호텔에 투숙한 로만군은 자살4시간전 방에 남긴 짧막한 유서를 발견한 호텔측에 의해 출동한 경찰, 심리치료자, 신부들의 합동 만류작전에도 아랑곳없이 창문난간에서 뛰어내려 버렸다.

어린이 예방접종 의무화

학교입학시 방역카드 소지토록

83년부터 유아및 어린이를 위한 각종 예방접종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 온타리오 보건성은 83년9월부터 국민학교및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천연두, 진성감기, 디프테리아, 홍역, 소아마비, 파상풍의 예방접종카드소지를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주정부와 함께 예방접종 법제화를 준비해온 온타리오의료협회측 워터루지부장 제랄드·이반스박사는 "이 정책은 퍼블릭스쿨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식·칠드런병원의 예방과장 로날드 골드박사는 캐나다의 예방대책이 인근 미국보다 훨씬 뒤져 홍역같은 경우 10배나 발병률이 높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즈는 뉴·브룬스윅주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예방접종을 의무화시키는 주이다.

농산물 시장위해 $5천만 차관도입

(서울 23일=연합)서울시는 83년 완공될 예정인 강남의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을 위해 국제개발은행(IBRD)에서 미화 5천만달러 차관을 얻기로 했다.

서울시는 5천만달러중 2천2백만달러는 금년도에, 2천8백만달러는 내년도에 도입하며 년리11.6%에 3년거치11년 상환조건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지 165,000평, 건평 59,000평에 1억2천5백만달러의 경비를 들여 건축될 대규모 농산시장이다.

여권수수료 인하될듯

환율인상으로 재조정불가피

현재 토론토(총영사 이상훈)을 비롯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있는 여권갱신수수료가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가 최근 공관에 시달한 지침에 의하면 현재의 일반여권 갱신수수료 60달러와 교포여권(유학생포함)20달러는 80년2월10일 당시환율(480:1)을 기준 책정했기에 재조정할 방침이다.

만약 현행 환율제를 적용한다면 여권갱신수수료가 40달러선으로 인하된다.

또한 여권갱신경과조치에서 82년7월31일까지 여권갱신마감에 따른 교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서 몇가지 조항을 삽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82년12월31일 이내에 완전귀국하는 사람은 여권갱신없이 구여권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면서 갱신치 않아도 된다.

또한 긴급한 사유로 일시 귀국하는 사람은 여권갱신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귀국하여 본부로 부터 1회에 한하여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돌아올수 있게된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아닌 일반여권소지자들은 미국비자가 구여권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여권을 발급받더라도 구여권과 함께 통용토록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여권갱신수수료 인하에 있어 과거 이미 갱신받은 사람들에 대한 환불문제는 인하조치 시행때 조정될것으로 보인다.

트루도 은퇴안해 경제개선되기전

(뱅쿠버) 피에르·트루도수상은 캐나다의 경제가 안정되지 않는한 은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주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트루도수상은 인플레이션이 12%를 오르내리고 실업율이 7%~8%(3월중 실업율은 9%)인 악성경제를 은퇴전 회복시켜 실업율과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社 告

제1회 어린이야구대회

본사는 금년부터 어린이 야구대회를 주최합니다.

한인사회의 장래를 짊어질 소년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북미에서 인기 높은 야구에 대한 2세들의 관심을 북돋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어린이들의 아이덴티티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행사는 오는7월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시및 장소는 장소가 예약되는대로 곧 발표합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서"라는 이 행사의 모토에 찬동하시는 교회학교, 한글학교등 많은 단체의 참가를 바랍니다.

주최 : 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 :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브랜돈스포츠사

한국일보
533-2361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 3월22일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	12.75～15%
	90일	14.25%	
	180일	14.5%	
	365일	15%	
	2년	16%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Without fear or favor
—The Korea Times—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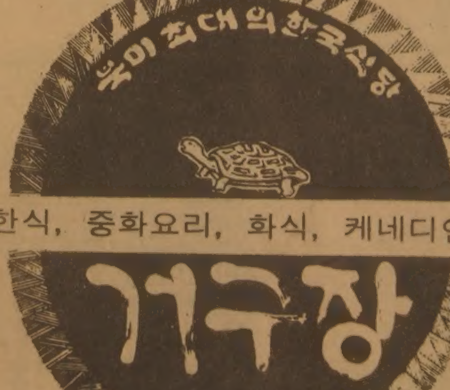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322－5147

巨 龜 莊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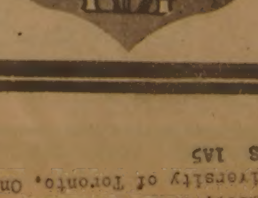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흥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기간 : 4월27일(화)부터 매일공연
(월요일만제외)
오후9시— 새벽1시

〈영업시간〉 월·화·수 :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현대적 최신소방시설 믿지말라?
무려 1천가옥 불타
LA근교시, 교민이재민은 3세대

(LA지사) 21일새벽2시께 LA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부근(유클릿과 볼 네거리)의 주택가에 불이일어나 1천여세대의 이재민을 냈으며 아파트50여동을 태웠다. 이재민들은 부근 볼 주니어 하이에 긴급수용되었으며 브라운지사는 이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재민가운데는 김춘호씨(43)등 3세대의 교포들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화재의 피해액은 4천여만달러에 이르며 오렌지카운티사상 최악의 화재로 꼽히고 있다.

시속55마일의 강풍을 맞은 화재현장은 디즈니랜드에서 1마일 남쪽지점으로 마치 대형폭탄이 떨어진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화재를 당한 김춘호씨는 이날새벽 아파트(1234 S. Uclid Ave)에서 잠자다가 소란한 소리에 깨어나 밖을 내다보자 이미 불길이 자기 아파트를 덮고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밖으로 일단 피신했다가 다시 불길을 뚫고 아파트로 들어갔으나 옷 몇벌이외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시 나왔다.

이 근처의 아파트에는 교포 10여세대가 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재민은 3세대정도인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카운티한인회 서영익회장등은 교포 이재민들을 돕기위해 이재민수용소를 뒤졌으나 교포들을 발견하지못해 현장에 나온 미적십자사의 도움으로 명단을 구하고 있는중이다.

화재직후 브라운지사가 현장을 시찰했으며 연방정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화재로 1명의 소방관을 포함8명이 부상당했으며 이중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디즈니랜드 대변인은 이번 화재로 디즈니랜드시설은 바람이 서쪽으로 불기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가든그로브에서도 일어나 강풍이 전기줄을 서로 연결시켜 5채의 주택을 불태웠으며 모두 50만달러의 피해를 가져왔다.

◆21일새벽 발생한 L.A.근교 애나하임시의 화재는 오렌지카운티 전역을 뒤덮었다. 이 화재로 교포 3세대를 비롯, 1천여세대의 이재민을 낳았다.

1.5리터 팝·바틀 재등장
디퍼짓 60센트, 안전보장

2년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소프트·드링크 1.5리터짜리 대형병이 22일부터 다시 등장했다.

79년 8월 안전을 이유로 연방정부에 의해 판매금지됐던 1.5리터병은 당시의 병값 30센트 대신 60센트를 디퍼짓해야 한다.

당시 이병이 판매금지된 이유는 170건의·폭발사고가 연방정부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캐나다 소프트·드링크협회 대변인 패트리셔·보울즈씨는 새로 등장한 1.5리터병은 원가가 병당 1달러인 얇은 플래스틱 보호막이 씌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익태씨 미망인 한국 영주꿈이뤄

(서울23일=연합)애국가 작곡가 고 안익태씨의 미망인 로리타·안(63)여사가 딸 레오노(30)양과 5살된 손자와 함께 한국에 영주키위해 23일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동안 스페인에서 살아온 안익태씨 가족은 한국정부 특별배려로 귀국영주가 가능해졌다.

안익태씨는 1965년 작고할 때까지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유럽에서 활발한 음악활동을 벌였었다.

◁금주의 행사▷

(4월26일~5월2일)

◆27일(화) 하오 7시 문인협회 월례회
연구발표: 이정원
곳: 이태준 회원댁

29일(목) 하오7시30분 김수환추기경 강연회
곳: 쎄인·폴 성당(83 Power St. Queen E.×Parliament 1블럭동쪽)

◆1일(토) 상오 11시 불광사 초파일행사
곳: 불광사(288 Hounslow Ave, Willowdale)
연락처: 233-9122

◆1일(토) 상오 11시~2일(일) 상오9시
선련사 초파일 봉축식
곳: 선련사(46 Gwynne Ave.)
연락처: 533-6911

◆1일(토) 하오 1시 어린이 음악콩쿨
곳: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연락처: 535-6864

◆1일(토) 하오2시 씨름협회 발기및 총회
곳: 한국관 (628 Bloor St. W.)
연락처: 석종윤(537-5952)

◆1일(토) ~2일(일) 저녁8시30분 연예인들의찬양과 간증의 밤
곳: 순복음 몬트리얼교회
(6297 Monkland Ave. Motreal)

◆2일(일) 상오7시 Y성서연구회
지도: 조남유 목사
곳: West End YMCA 회관
(931 College St. W.)

2일(일) 하오6시 김추기경 환영파티
곳: 프린스호텔(Don Mill×Eglinton)

상대방에 강한印象 주려면
왼쪽 얼굴을 보여라

오른쪽보다 풍부한 感情표현
日배우 60%가 왼쪽사진使用

상대방에게 강렬한 인상을 보이고 싶을때는 왼쪽얼굴을 보여라—. 사람의 표정은 오른쪽 얼굴보다는 왼쪽얼굴에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심리학과의 시카입교수팀이 연구발표한 것이다.

이에따르면 격한 노여움이나 혹시 슬픈감정을 상대방에게 인상깊게 나타내려면 되도록 왼쪽얼굴을 보이는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영화배우나 TV탤런트처럼 감정이나 얼굴표정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인기직업인들은 물론 신문, 잡지, TV화면에 자주얼굴을 나타내야하는 정치인들도 왼쪽얼굴표정에 신경을 써야한다는것.

또한 일반인들도 평소 강한감정을 나타낼때나 사진을 통해 결혼상태자를 선택할때도 큰 도움을 줄수있다고 한다.

사진도 정면아닌 옆쪽으로 찍을경우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돋보이게 하는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예부터 왼쪽얼굴은 사적인 얼굴이며 오른쪽은 공적인얼굴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도 있어오기는했다. 그러나 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 증명한적은 없었다.

연구팀은 남녀각각 10명씩을 선발해서 인간의 감정표현의 기본이라고하는 희, 노, 애, 락등의 표정을 짓게하여 이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나서 사진의 중앙부분을 수직으로 잘라 얼굴을 좌우로 2등분했다.

그다음 오른쪽사진으로 왼쪽얼굴부분을 만들어 하나의 얼굴사진을 만들었다.

같은방법으로 왼쪽얼굴부분으로 하나의 사진을 만들었다.

이같이 만든 두장의 사진을 여러사람들에게보여 그 표정에대한 강약을 조사했다.

그결과 왼쪽얼굴사진의 표정(감정)이 더 풍부(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간의 신경계는 좌우가 교차하고있어 몸의 오른쪽은 왼쪽뇌가, 왼쪽은 오른쪽의 뇌가 지배하고있다.

그러나 감정의 표현은 오른쪽뇌가 맡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어 이오른쪽뇌의 작용으로 왼쪽얼굴의 감정표현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는것이다.

男優발렌티노 T셔츠 런던서 6백73弗경매

영화배우 루돌프·발렌티노가 그의 마지막 출연영화인 「족장의 아들」에서 착용했던 크림빛 실크 셔츠가 런던경매시장에서 6백73달러에 경매 되었다.

또한 이영화 출연때 사용한 실크로된 현장은 9백74달러에 경매되었다.

「족장의 아들」은 1926년에 제작됐으며 발렌티노는 그해 31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교민동정

◆구본무(선미광고 대표) : 전 토론토 TV한국 프로듀서로 활약했었는데, 미주지역 첫 케이스로 한국방송관계 기관과 공식에약하여 어린이 교육용 비데오테잎과 종교, 문화, 연예등 다채로운프로 300여개를 새로 구입한 기념으로, 매주 한인회관에 위치한 한국노년회에 무료로 대여해 주기로 약속했다 한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은 4월말
'81 기업세무보고 전략

경제생활과 우리 ㉑
세무상담편=김명숙 회계사무소제공

영수증보관이 세금공제의 지름길
세무감사는 장부정리불실에서

○김명숙씨

마지막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의 세무감사에 대비한 방법 몇가지를 다루어 보겠다.

감사대상을 뽑는 방법은 컴퓨터가 각 개인의 세금보고서를 조사할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것들과 또 무작위추출(아무거나 그냥 잡히는 대로 뽑는 방법)로 뽑아내며 일단 컴퓨터가 작성한 리스트는 국세청의 직원들이 직접 조사, 그중 약 90~95%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나오게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세금보고가 몇년 계속되는 경우에는 감사의 위험성이 다분하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세무감사를 나오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자기의 회계사와 의논, 가능하면 모든 감사절차를 회계사에게 의뢰하는게 현명하다고 본다. 감사에 필요한 서류로는 장부와 영수증, 은행 스테이트먼트와 지불완료 수표, 매상과의 테잎엔딩(매일의 매상고 총액이 찍힌 테잎)등 으로서 이상의 증빙서류와 장부를 들쳐보는 예도 흔히 있다. 보통때 장부정리를 잘 해놓은 경우에는 세무감사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으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상고를 너무나 터무니 없이 속이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

특히 버라이티 상점을 운영하는분들 중 매상고를 너무 줄인 나머지 경비마저 제대로 보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감사를 당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이다. 파트타임으로 종업원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CPP, UIC, TAX를 떼고 지불하며 그 기록을 보관, 다음해 2월말까지 T4 SUMMARY를 보고해야 한다. T4를 보고하지 않고서 세금보고할 때 종업원의 임금을 경비로 떼게 되면 손익계산서와 T4 SUMMARY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초래 함으로써 감사의 위험성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많은 교포들이 그동안 세무감사를 당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세무감사를 대비해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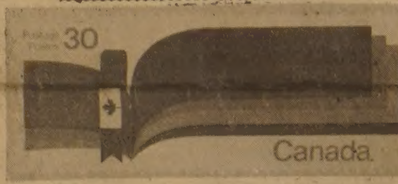
세무감사에 대해 완벽한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구비와 장부정리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필자가 회계사무소를 하면서 많은분들에게 들은 질문중 자동차 휘발유값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영수증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 허다하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게 필자의 대답이다. 물론 다음부터는 꼭 영수증을 보관 하라는 충고와 함께 어느정도의 자동차 경비를 빼 주는게 예사이지만 무슨 비용이든 영수증없이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캐나다의 세금제도는 무척 까다롭고 그 절차가 복잡,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회계사를 일찍 정하여서 여러가지 조언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중에 받은 전화문의중 많은 분들이 T4와 T5가 제대로 보고가 안되어 당황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특히 가게의 매니저로 일하는 분들이 주인에게 지불하는 로얄티에 대해 T5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었다.

회계사란 세금보고만을 위한 회계사가 아니고 사업의 운영과 세금조정에 대한 여러가지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의 운영중 가장 밀접한 관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다. 세금보고때만 회계사를 찾는 풍습은 속히 시정돼야 한다.

〈편집자주〉8회에 걸쳐 세무상담편을 기고한 김명숙(본명 유명숙)씨는 블루어 한인상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회계사무소(전화: 537-3171)를 개업하고 있다. 김명숙씨의 뒤를 이어 토론토유일의 교포변호사인 강찬영씨가 교민들의 상점이나 주택거래등에 있어 일어나는 문제를 위한 법률상식을 소개 한다. 상거래행위상 제기되는 궁금증은 본사 편집부(533-2361)나 필자에게 문의하면(537-3171) 된다.



30¢ 짜리 기념우표 발행
테리팍스와 헌법 선포

테리팍스군의 회망이 마라톤을 기념하는 우표(좌)와 캐나다헌법발족을 기념하는 새 우표(상)가 나왔다.

이 우표들은 30센트짜리로 시중우체국에서 매매된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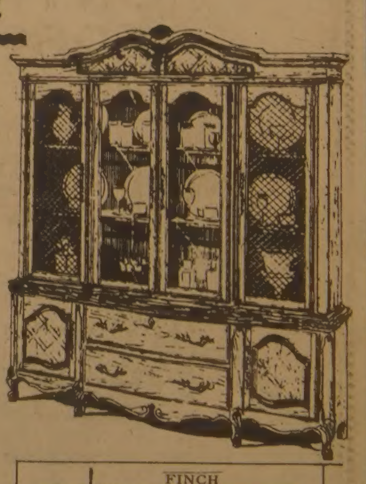
LEON'S 가구점

한국인 세일즈맨

조석민
KEVIN CHO

역사와 전통
캐나다 최대 규모의 WHOLESALER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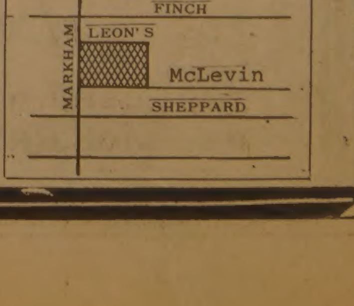
○ FURNITURE
○ CARPETS— 모든 카펠종류
○ APPLIANCES—T.V.,전축,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DISHWASHER, 스토브, 마이크로 오븐, 후리저 등등 각종 전자 제품.



※오실때는 미리 회사나 집으로 전화 약속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저녁10시까지.

20 McLEVIN AVE.
(스카보로) (세파드 × 마캄)
B) 291-3818
R) 749-9687, 746-0981



People of the Deer

〈매일연재 캐나다소설〉 (149) 마지막회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XXI. 미래의 날들

내가 다음장에 쓰는 아이디어는 결코 어떤 이상가가 희미하고 낙관적으로 꿈에보는 몽상이 아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내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북국에서당면하고있는 딜레마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것보다 훨씬 더 충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깊이있게 이루어놓은 것들이다. 그리고 다행인것은 이들 아이디어가실질적일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진지하게 이들이 실현되는것을 원한다면 쉽사리 이행될수 있는것이다.

북극에서는 에스키모를 위하여 내가 요구한 모든것이 이미 에스키모인들에게 허용이 되고있는곳에대하여 이야기 할수있다. 이곳이 바로 그린랜드인데이누이트가 가장 북쪽으로진출한 곳이며 덴마크 정부에 의해서 수년동안 원주민 행정에 밝은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 왔지만이런정책이 캐나다에서는 얄팍한 속임수로 이행해볼려던 서투른 노력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그린랜드에는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다. 오직 그린랜드사람들이다. 어떤사람들은 혼혈을 어떤사람은 순수한 덴마크사람의피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같은 국민이다. 이곳에서는 이 모든 종류의 어린아이들을위한 학교에 많은 에스키모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다. 그린랜드 원주민들은가르치고 배웠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육과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아무리 순수한 에스키모일지라도 그린랜드의 학교제도를 다 마치고 덴마크정부의 비용으로 덴마크에가서 대학에 들어가 교육을 마칠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린랜드에 돌아와서 선생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주 옛날과 현재 우리현대사회를 쉽게연결할수 있는것이다.

배핀만의 얼음위에서 창으로 물개를 잡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을뿐 아니라 축생같은노동자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그숫자가 점점 증가하고있는 것이다.

이들은 규모가크고 능률적으로 수산업을 운영하면서 큰 이윤을 내고있다. 이들은 복잡한 관상대의 기구를 조종하는것을 돕고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모든 무역소를 관리하는데협조나 운영을 하는데 이 무역소는 그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이윤만 내게 만들고있다. 실질적으로 그린랜드 사람들은 덴마크 정부의 행정관들에 의해서 감독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 자신의 경제를 갖고 있으며 원주민들이 스스로 완전한 관리를 할수있을때 넘겨받게 될 것이다.

그린랜드 사람들은 우리 캐나다 북극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방해를 받고있는 상업적인 착취를 못하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를받고있다. 원주민들의 피를빨아서 쉽사리 부자가되는방법을 알고있는 백인들은그린랜드에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또 그곳에서는 이런따위 인간들은 현재 힘을쓰지 못한다.

천연식량 재원은 엄격하고 온전한 법으로 보호되고 있기때문에 그린랜드에스키모가 살고있는곳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해도 여간해서 굶주리는법이 없다. 계절적으로 나쁘거나 사고가 생겼거나 혹은 재난이 닥쳤을때 행정가들은 즉시 행동하여 시간을 끌면서 허풍만 떤다든가 행동하는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

우리의 북극처럼 그린랜드의 많은 정착지는 유럽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자연조건이다. 그러나 그린랜드 사람들은옛날서 부터 그런 황량한 지역에서 번창하면서 사는방법을 익혀온 에스키모의유산을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땅의 일부분인 것이다. 현재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그린랜드 사람들은 자기자신들의 나라를 갖고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메스꺼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공헌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하게 될것이다.

그러면 그린랜드의 원주민들은 백인들 경제 탐욕을 위한 농노들이 아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 거추장 스럽게 생각하며 투표권이없는 부담감을 갖는정부의 보호인이 아니다. 그와반대로 이사람들은 점점 활기를 띠고 힘과 이해를 갖고있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한백인 정부가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린랜드의 에스키모들은 이제 그 미래에 속해있고 미래는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알수있는 바와같이 이것은 가능한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취급해온 압박에서 벗어나게된다면 에스키모들은 우리자신들처럼 이세계에서 귀중한 시민이 될수있을 것이다. 에스키모의 미래는 더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들땅의바위틈바구니속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 이할미우트의 몸서리 처지는 지나간 악몽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질수 있을것이며 여러곳에서 즉 현재 죽은 망령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는 리버오브맨의 강뚝에 새로운 인간의 목소리가생기에 찬 웃음소리 속에 울려 퍼질수 있게 될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이며 한번 이루어 지기만하면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이익이 될것이다.

오텍의 세살짜리 아들이 노티로 말할것 같으면 오텍이 먹을것이 떨어져서자기 어린애를 컴컴한 눈구덩이속에 파묻을 필요가없는 그런 긴 겨울들이 올때가 있을까? 이노티의 늙은 어머니가 이노티의 어린애들이 차거운 이글루 지붕밑에서 조금더 생명을 연장하도록 요구되지 않고, 걱정없이 편하게 죽어갈수 있는 시기가 올것인지?

아들 이노티의 시절이오면 위대한 이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다시한번 힘차게 살아갈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는동안 우리는 우리의 국력을 과시하게 될것이며 이들은 즐거이 우리국민의 일부가 될것이다.

그때가 되면 피로 물들여진 리버 오브 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속에깊이 새겨진 카불루나이트(백인)의 검은 상처 자국이 비로소 깨끗이 씻겨질 것이다. (끝)

편집자주: 지난 81년6월1일 본보 일간발행 기념으로 연재 제1회분을 실은 이후 오늘 제 149회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역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약 11개월에 걸쳐 연재된 장편이다.

원작자및 그간 번역을 맡아준 원씨에게 애독자들과 더불어 뜨거운 고마움을 표한다.

독자들은 캐나다 작가에 의한 캐나다가 무대인 이 소설을 통해 문화의 탈로 칠해지지 않은 캐나다원주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믿는다. (편집부)

—번역을 끝내면서—

독자와 편집자에 감사
더많은 번역작업 기대한다

○원재훈씨

이달 4월18일은 캐나다가 남의 영향력이나 인준없이 스스로 헌법을 개정 혹은 제정할 수 있다는 권리를 찾은, 다시말해 진정한 의미로 재독립을 한날이 된것같다. 오랫동안 이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숙원이 이루어졌지만 새로 공포될 헌법에 원주민들의 권익보호가 미적지근 하다는데 원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간들이 역사를 통해 강자의 입장에서 제정하고 제도화 해놓은 사회정의와 윤리 또는 도덕관념에 대하여 나 자신이 많은 회의를 금할길 없다.

한쪽의 희생없이는 다른 한쪽이 번창할 수 없는 힘의 역학관계로 이 세계가 망으로 덮여 씌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조상이 이곳 원주민의 조상이요, 이곳 원주민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일체감을 느끼면서 왜그런지 분함을 금할길이 없는 것이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150여회에 걸쳐 수개월동안 연재가 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졌기를 기대하면서 에스키모들이 우리와 매우 흡사한 문화, 사회윤리,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대 종교를 그대로 믿고 수호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믿어본다.

그동안 바쁘신중에도 원고교정, 식자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한국일보 편집진및 교정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생선가게의 이쁜 풍경을 꼴뚜기가 망쳐놓는 다는 식으로 독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는것은 좀더 잘 할 수 있는 실력도 못되면서, 큰 작품을 건드렸다는 뉘우침같은 심정이다.

끈질기게 몇개월을 내 자신과의 고달픈 투쟁을 벌렸고 다 끝이난 다음에 내 자신을 이겼다는 승리감도 나쁘진 않았다.

앞으로 더많은 분들이 더좋은 작품을 번역 또는 우리의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우리를 슬프지 않게, 우리를 화내지 않게, 우리를 안타까워하지 않게, 우리를 가난하지 않게 하는 정신문화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표와 목적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사업이 계속 되기를 바란다.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1982년 4월 19일

역자 원 재 훈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심성의껏、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80석、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랜돈스포츠 598-3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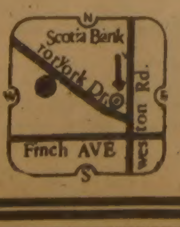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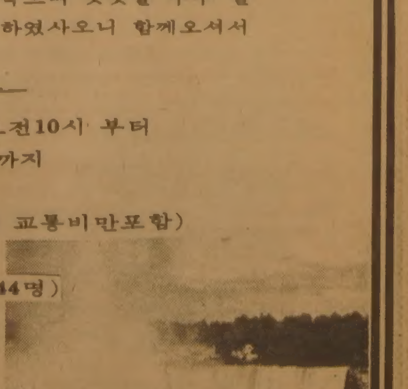


노년회 나이아가라 관광안내

움추렸던 추위가 다지나가고 이제 훈풍의 계절이 왔읍니다.
꽃소식과 함께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항상 폭포만 즐기던 우리들이 그곳에서 하루를 묵으며 곳곳을 두루 살피는 즐거운 여행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사오니 함께오셔서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원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5월 14일 (금) 오전10시 부터
5월 15일 (토) 오후8시까지
장 소 : 나이아가라
회 비 : 일인당28불 (호텔요금과 교통비만포함)
출발장소 : 한인회관앞
마 감 : 5월7일 오후4시 (선착순44명)
※ 자세한 문의는 755-8079

한국노년회
회장조영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越南기도 北傀兵4명 被殺

어제새벽 華川北方 DMZ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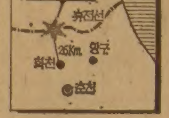
82㎜砲등 8百여발 亂射

국방부는 21일새벽 中部전선 華川북방 26㎞지점의 비무장지대내 북괴양계초소에서 집단탈출을 기도한 北傀군을 저지하려고 아군초소를 향해 82㎜ 비반총포(무반동포)까지 동원하여 8백여발의 총격도발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國防部 "우리측도 즉각應射…被害없어"

朴鍾植 국방부 대변인은 『北傀가 21일새벽 2시45분께 4명의 北傀군병사가 야음을 이용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금성천을 따라 최단거리에있는 아군초소를 향해 월남기도중인것을 발견하고 50여발의 예광탄을 쏘아올리면서 추격을 개시했으며 4시께에는 8회에 걸쳐 귀순하려는 北傀병들에게 현위치에서 정지하라는 화성 기방송을 한데이어 5시25분부터 5시45분사이에는 적지뢰가 폭발하는 폭음과 함께 82㎜비반총포 2발을 비롯한 8백여발의 사격을 아군초소에 가해왔다고 밝혔다.

朴대변인은 아군초소에서 관측한바에 따르면 이날상오 7시30분께 군사분계선 북방 6백m지점에서 적지뢰가 폭발하였고 북괴군 4명이 사망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朴대변인은 이번 北傀의총격이 집단월남을 기도한 수명의 北傀군을 저지하기위해 비롯된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82㎜비반총포까지 동원한 총격도발은 명백한 휴전협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朴대변인은 北傀의 무차별총격에 우리측도 자위를위해 즉각 응사를했으며 아군피해는 없었으나 아군초소의 철조망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수석대표 스틀슨소장은 이날상오 9시52분 北傀측에 대해 총격도발을 엄중항의했다.

檢察, 9명소환

宣敎協성명 경위·眞意를 조사

權皓景·朴炯圭·諸廷丘 목사등

검찰은 21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에대한 우리의견해」라는 성명서내용중 『문제가 되는부분이있다』고 판단, 성명서를 기초하거나 서명한 관련자를 소환,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날상오 성명서를 기초한것으로 알려진 선교협의회 총무 權皓景목사 실행위원 諸廷丘목사 許秉燮목사 직원 千英草씨(여)등 4명과 선교협의회 회장 金勝勳신부(東大門성당) 고문 朴炯圭목사(기독교장로회총회장) 朴弘신부(西江大교수) 정상복목사(한국기독학생총연맹총무) 趙松목사(협의회부회장·永登浦노동교회)등 9명을 불러 성명서기초에서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을 조사중이다.

金慶會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이날 『성명서로 작성 발표하게된 동기, 배경, 구체적인권위및 그내용이 담고있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키로 했다』고 밝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며 진상이규명되는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金부장검사는 또 ▲성명서가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정당화하는표현을썼고 ▲反美투쟁 북침준비완료등 북괴주장에 동조하는자를 비호했으며 ▲폭력행위를 정당화했을 뿐만아니라 ▲反美선동으로 결과적으로 북괴주장과 같이하는등 성명서 내용의 일부분은 국가의기본과관련, 법률적으로 문제가된다고 밝혔다.

金부장검사는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한미이간및 폭력정당화등이 명백히 종교영역을 넘어선 정치행위이기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 종교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환된 관계자가운데 朴弘신부는 상오8시께 재직중인 西江大에서 소환됐으며 朴炯圭목사와 權皓景목사는 상오10시께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됐다.

한편 丁海昌 서울지검검사장은 『관계자가운데 조사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되는 9명을 우선대상으로삼았으나 구체적으로 그선정기준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聲明내용 과격해 意見이 엇갈렸다"

權皓景목사는 "전원 署名응락했다" 主張도

한편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가 발표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에대한 우리의견해」라는 성명서에 서명한것으로 알려진 42명중 일부는 처음부터 성명서내용에 반대, 서명을 안했거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자명단에 들어있는 한 신부는 『지난15일 상오10시 서울城北區 敦岩洞 상지회관에서열린 사회선교협의회 지도·실행위원회에 신부와 목사등 20여명이참석했으나 도시산업선교회측이 미리 만들어온 성명서초안을 검토한결과 池學淳주교등 신부7명이 초안내용이 치졸하고 과격하다 다시 손질을 하자고해 그렇게 하기로의견을모으고 해산했었다는것.

그래서 사회선교협의회 실무진들이 지난17일 각언론기관에 배포한 성명서는 전체적인 협의가 다시있었던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협의회 회장인 東大門성당 金勝勳신부는 지난19일 이 성명서가 발표되자 협의회에 남아있던 5백80여장의 성명서를 東大門경찰서에 임의로 제출했는데 金신부는 『42명 서명자 전체의뜻과 성명서의 내용이 일치하는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反美성명서」에 서명한 한국교회사회선교회 소속 權皓景목사는 20일하오 『이번 성명이 반미적인것』이라는데 대해 『우리의 성명은 반미적인것이 아니고 양국의 국익을 해치지않기 위한것』이라면서 『망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의 소환을 요구한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權목사는 『성명서에 등장한 42명이 모두 서명했느냐』는 질문에 『성명서에 등장한 인사중 일부가 해외 출타중이었으나 모두사전 응낙을받았으며 등장인사 모두가 실행위원및 지도위원으로 전원합의했다』고 주장했다.

權목사는 이날 吳忠一, 朴炯圭목사등 15명의 선교협의회원들과함께 서울道峰區水踰洞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사후대책을 협의한 자리에서 이같이말했다.

"韓美관계 금가는言動 유감"

盧外務밝혀

盧信永외무장관은 20일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가 위컴美軍사령관의 소환을 주장하는등 [illegible] 『韓美관계는 과거 어느때보다 긴밀하며 두나라간의 공고한 同伴者관계는 더욱 증진되고 있다』고 지적, 『이런때 일부 지각없는 敎職者들이 韓美관계에 금이 가는 言動을 했다는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盧장관은 이날하오 駐韓美대사등의 本國소환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요구에 이같이 밝히고 『지난 越南敗亡때도 人權이다 뭐다 해서 시끄러웠고 一應정의에 입각했다고한 여론이 결국 越南을 공산주의자들의 手中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상기시키고 자유와신앙도 나라가 있고 국가가 지켜지고 난다음에 보장되는것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워커대사등의 [illegible] 질문에 『이번일 이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일이기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별로 괘념치 않고있는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 全斗煥 대통령이 「과학의날」 기념식에서 有功者들에게 훈장을 걸어주고있다.

"우리資源은 尖端기술"

全대통령, 科學의날 致辭

技能人力 중점養成…존중풍토를"

全斗煥대통령은 21일 『오늘날 기술혁신시대에 있어서 한나라 과학기술의 成敗는 곧 국가의발전에 직결된다고 하겠다』고 말하고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先進공업국으로 진입하기위해 우리는 과학의 창달과 기술의 혁신에 全心全力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5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별다른 資源이없는 우리의 여건속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은 더없이 긴요한 일이 아닐수 없으며 따라서 資源이 없는 우리가 가꾸어야 할 유일한 자원은 바로 最尖端 기술로 무장한 풍부한人力』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기술혁신을 이룩해 최첨단기술을 우리속에 깊이 체질화시킨다면 우리는 단순한 製品판매의 차원을 뛰어넘어 세계시장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파는 『기술한국시대』를 반드시 맞이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투자를 확대해 이분야의 人力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선진첨단기술을 과감히 도입, 소화할수있는 태세를 갖춤으로써 과학기술의 先進化를 촉진할수있는 터전을 마련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특히 『한나라의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위해서는 산업계를 포함한 전국민의 汎國民的인 결의와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라고 설명하고 『기업가는 혁신과 능률을 경영의 지표로 삼아 기술자와 기능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풍토를조성하는 한편 국민은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崇尙하며 과학적思考를 일상생활의 바탕으로 삼아나갈것이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나이撤收時限 이행여부를決定

이스라엘閣議

【예루살렘·카이로20日UPI AP綜合】 베긴이스라엘수상은 21일 특별각의를열고 오는25일로 박두한 시나이반도철수 시한이행여부를 최종 결정짓는다.

이스라엘정부는 특별각의에 앞서 베긴수상이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에게 이스라엘 시나이반도철수후 이집트가 캠프데이비드협정을 준수할것임을 서면으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한데대해 회신을기다리고있다.

베긴수상의 한보좌관은 각의에서 『철수의 재고를 결정지도 모른다』고 전했으나 이스라엘이 최후통첩을 내린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도 같은날 안드·모히에딘 수상, 카말·하산·알리외상, 압델할림·아부·가잘라국방상등 고위관리들이 포함된 「정치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철수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사태발전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집트 정부의 캠프데이비드협정 준수약속을 요구한 베긴수상의 메시지에대한 답신에서 협정준수와 이협정에의한 팔레스타인 문제적용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서화요청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개나리 꽃公園으로 단장

「漢江푸른나무심기」 4차년事業 시작

本社·서울市주최

한국일보社와 서울시가 함께 벌이고있는 「한강푸른나무심기운동」 제4차연도사업이 21일 시작됐다.

사업시행첫날인 이날 하오 3시 서울江南區 제3한강교 남쪽 고수부지 야구장주변제방(연장1㎞ 면적1천㎡)에 개나리3천그루를 심었고 10㎡에 부엽토를 시비하는등 일대를새로운 꽃의공원으로 단장했다.

이날 식수에는 朴英秀서울시장 張康在한국일보회장 洪惟善부회장및 金振晃江南구청장 江南區새마을부녀회연합회(회장李姬桂) 회원및주민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朴英秀시장은 이날 식수를마치고 『푸른서울가꾸기사업의 선도역을 맡아온 이식수운동은 해를거듭할수록 좋은결실을 거두고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社는 서울시와 함께 「아름답고 건강하고 푸른서울」을 만들기위해 지난79년부터 이운동을 연례행사로펴왔는데 이날의식수를포함, 그동안 1백83만5천4백31그루를 심었다. 또 올해안으로 12만4천4백그루의 개나리를 더심어 모두1백95만9천8백31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식수하는 朴英秀서울시장(左)과 張康在 한국일보회장(中). 사업 4차연도인 올해에 한국일보는 12만4천4백그루의 개나리를 심을계획이어서 모두 2백만그루에 육박하게됐다.

사우드조지아島공격 態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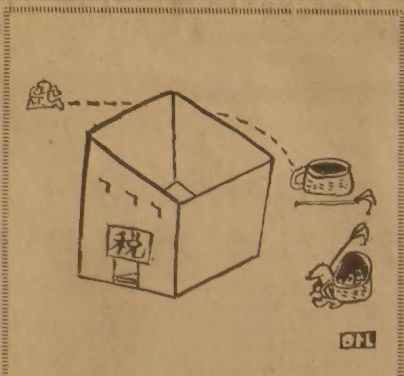
英함대、24시간內…아르헨은 "主權포기안해"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21日UPI=聯合】 포클랜드군도 탈환을위해 파견된 영국기동함대의 선두함정들이 앞으로24시간내에 포클랜드군도의 부속도서중 하나인 사우드조지아도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을것이라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지가 21일 보도했다.

한편 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illegible] 포클랜드에 대한 주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독신청 533·2361

社會漫評



걷히진 않고…離職은 많고…

日·中共간航空노선 北傀, 자국통과고집

【東京21日=聯】 북괴는 한반도상공을 통과하는 일·중공항공노선단축문제와 관련, 일본이나 중공이 모두 북한측의 항공루트를 이용해줄것을 요구하고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신문들에 의하면 최근 平壤을 방문하고 北京에들른 구노·쥬우지(久野忠治)日朝의원연맹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북괴가 일·중양국 모두 북한상공의 통과를 고집할경우 이 문제는 암초에 걸리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地平線

사느라고 바쁘다보면 책을 읽기어렵겠지만 너무도어이없는 한통계가 나왔다. 우리나라사람가운데 지난해에 책을한권도 읽지않은사람이 30.7%나 되고 [illegible] 책을 전혀 안보았다고 한다. 문화 국민을 자처하는 우리로선 참 [illegible] 생각마저 든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illegibl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하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구독신청은
(416)
533·236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씨름협회
발기및총회

금번 본 동호인들은 우리의 고유한 민속스포츠인 씨름을 애호하며 지금까지 몇 번 산발적인 대회를 가져오던중 뜻있는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기및 총회를 가짐과동시에 캐나다체육회 산하단체로써 정식가입함으로써우리민족특유의 이스포츠를 육성·발전시키려고 하오니, 취미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참석을 바랍니다.앞으로 정기마다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때 : 1982년 5월1일(토) 오후2시
장 소 : 한국관(628 BLOOR ST. W.)

연락처 : 석종윤 (537—5952)
최용근 (691-7478)
발기인 : 김연수, 김연태, 최용호, 윤종욱, 박태조, 강신용, 석종윤.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놓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샾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샾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샾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제2회
재캐나다체육회장배
볼링대회

시 일 : 1982년5월8일(토) 12시
장 소 : PLAY-TIME BOWLERAMA
33 SAMOR DR. (더프린 ×
로렌스)
종 목 : 남, 녀 개인전(참가비 : $7.00)
남, 녀 개인전 WITH 핸디
(ABC, WIBC 핸디를 적용함)
혼합전(이번 대회는 부부가 아니어도 참가할수 있음, 참가비 : $12.00)
시 상 : 남, 녀 개인전 1,2,3등
1등 : 에뉴얼 컵
남, 녀 개인전 WITH 핸디
1,2,3등
혼합전 123, 등
남, 녀 하이씽글
연락처 : 622-0224 MR. 오
656-6601 MR. 유

주최 : 재캐나다 체육회
주관 :
재캐나다 볼링협회

「시나이撤收」 앞으로 4일

불확실한 平和댓가… 초초한 이스라엘

定着民퇴거에 軍도 눈물

이스라엘은 오는 26일상오7시(한국시간)로 예정된 시나이반도 완전철수를 앞두고 착잡한 분위기 속에 이지역 정착민소개작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스라엘군당국은 지난 19일부터 2만여병력과 클레인 철장까지동원, 북부 야미오정착촌에서 강제소개에 항거하는 3천여 정착민들을 퇴거시키고있다。

군당국의 강제소개작전에 저항하는「평화난민」인 주민중 10여명은 지하방공호에 들어가 부비트랩을 장치해놓고 군당국이 강제철거를 개시하면『30초간격으로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강제소개작업을 집행하는 병사들이나 퇴거를 당하는 정착민 모두 침울한 표정이다。

지난19일 10여명의 주민들을 철장에몰아넣어 퇴거작전을 벌이던 군인들은눈물을 흘리며 임무를 수행했다。

침울한 분위기는 이스라엘의 조야가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은 캠프 데이비드평화협정에의한 이집트와의 평화의 댓가로 지난 67년 3차중동전쟁에서 점령한 시나이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기로되어있다。

그런데 시나이반도의 반환은 임박했으나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애매한태도때문에 평화의전망은 불확실한점이 이스라엘을 초조하게 만들고있다。

이스라엘은 1949년부터 73년까지 4차례의 중동전쟁을치르는사이에이집트와의평화를열망해왔다。

4면에 적을 두고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중동의 강국인 이집트와의 평화가 안보를 위한 불가결한 요소였다。

이스라엘은 79년 카터美대통령의 주선으로 캠프데이비드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80년10월 평화협정의 주역이었던 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이 암살되고 무바라크가 등장한뒤 상황은 달라졌다。

무바라크이집트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아랍진영과 화해를 모색하는등의 일련의 정책으로 시나이반도 철수후 이집트가 아랍진영에 복귀하리라는 것은 시간문제인듯한 인상을 풍겼다。

무라바크는 지난3월에는 아랍세계의 눈치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예루살렘방문을 거부했다。무엇보다 이스라엘을 격분시킨 사실도 지난주 쿠웨이트에서열린 비동맹회담 예비회의에 참석한 이집트대표가『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국가를 창설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한것이다。

팔레스타인국가 창설구상은 이스라엘이 해석하는 캠프데이비드협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주장이다。

이스라엘은 또 이집트가 이미 반환받은 시나이반도 남부에 많은 군대를 배치시키고있으며 시나이반도를 통한 이스라엘 점령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대한 무기공급과 게릴라침투를 방조,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무바라크태도 애매해 不安가중

샤론등 일부각료는 延期주장도

여러가지 상황으로 이스라엘은 무바라크의 이집트를 믿지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측은 철수 막바지에 이집트측에 협정준수의 서면보장을 요구하는한편 철수후에 이집트측이 명백하게 협정을 위반한증거가있다면 무력으로 시나이반도를 재탈환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당장 평화관계를 깨뜨릴 뚜렷한 명분도없고 안보를뒷받침하는 미국의 압력도있어 철수를 이행하고있으나 마음이 편치못하다。

불확실한 평화의 댓가로 시나이반도를 반환하는 이스라엘의 희생도 막대하다。

안보면에서 1만3천㎢나되는 시나이반도는 이스라엘국토의 2·5배로 외침에대한 방파제로서 중요한 전략적가치를갖고있다。

초음속비행기와 최신수송수단을 동원하는 현대전에서도 광활한 영토의 의미는 절대적이다。

73년 4차중동전쟁때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虛를찔러 기습을했으나 결국이집트군은 국경에서 시나이반도 15㎞밖에까지 진격하지 못했고 이틈에 이스라엘은 전열을 정비할수 있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를 반환하면 훌륭한 군사훈련장소를잃게된다。시나이반도는 인구가희박한 광대한 사막으로 공군기의폭격과 사격훈련에 알맞다。

시나이반도 반환은 경제적으로도 큰손실을가져온다。

시나이반도주둔 군대를 이동하여 새진지를 구축하는데 23억달러, 철거민보상비 7억달러, 소개비용3억달러등 모두 33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됐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지역에서 이동한 군대를 배치한 남부사막지역에 새군사기지를 시설하는데도 약60억달러가 소요된다。

또 지난68년부터 15년동안 이지역개발에 투자한 1백70억달러도 고스란히 포기해야한다。이밖에 이스라엘석유수요의 6%를 공급하는 시나이반도 서해안의 유전도 포기해야한다。

이스라엘의 막대한 희생과는 달리 불투명한 이집트의 행동때문에 데이비드·레비부수상과 샤론국방상등 베긴내각의 3명의각료는 시나이철수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여기에 시나이반도철수를 둘러싼 찬반논쟁으로앞으로 심각한 정국혼란마저 예상되고있다。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를 반환했다고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합병한 東예루살렘과 골란고원및 점령지 요르단강서안과 가자지구의 아랍영토와 팔레스타인 자치문제는 미결의 불씨로 남아있다。

결국 1948년 유태국가창설후 전진밖에 몰랐던 이스라엘이 전략상 일보후퇴한 시나이반도철수는 중동평화를 위한 하나의 시작일수밖에없다。

【申相頊기자】

국제焦点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의 허수아비가 20일 이스라엘점령 시나이반도의 야미트읍에 매달려 있다。이 지역주민들은 21일로 계획된이스라엘군의 주민소개작업에 대비, 집주위를 요새화하고 있는데 2천명 이상의 강경한 철수반대 주민들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시나이반도의 이집트반환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소개작업에 저항할 것을 맹세했다。【야미트20日 AP電送=聯合】

나의 이력서

金蘇東 ㉜ (題字 金蘇東)

일본군부의 수뇌들은 은근히 중국대륙의 공략을 꿈꾸고 많은일본인을 만주에 보냈다。관동군의 위력은 상해, 북경까지 미치고 한국인들에게는 센징이(鮮系)라는 이름을붙여서 일본인다음으로 우대했다。일부 몰지각한 한국인들은 일본의 쪽정밀에서 시달리는 만주인들 위에 군림하면서 치욕적인 권세를 자행한자들도 있다。

그러한 정세속에서도 동경은 그런대로 평온했고 경기도 약간은 회복된듯했다。크리스머스이브의 밤 긴자로 나갔다。거리는 몸결이 출렁이듯 인파로 혼잡했고 오색불빛이 사방에서 명멸하는 화려한 분위기다。낯모르는 젊은여성들과 부딪치기도하고, 악수도하고, 같이 샘페주도마시는 들뜬 무드가 당시의 크리스머스이브의 분위기이기도 했다。가면을쓰고 거리를활보하는 젊은대학생들과 낯모르는 우리들에게

日人 친구 오가다君

손을 흔들어『메리크리스머스』를 외치는 술취한 젊은여성들도있다。여자를 유혹하기도 좋고, 반대로 유혹 당하기도 쉬운 자유와 방종이 넘쳐흐르는 밤이다。그 엄청난 인파에 밀려서 니혼바시(日本橋)부근까지 왔다。어딘가에서 古賀政男의 가요곡「오에도 니혼바시」가흘러나온다。「오에도 니혼바시선달도 저물어, 다리에 서서 먼곳을 보니, 저쪽은 요시쪼(吉町) 인형정(人形町) 인데, 울려오는 저소리 샤미(일본 弦樂器) 소리 북소리」사이조야소(西條八十)의 시다。세밑을 맞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드는 외로움을 잘 그린 시다。빈과부의대조가빠져리게느껴진다。가난하고 외로운내마음을달래면서어느가로등밑에서 찬란한불빛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야 오래간만이다』하면서 내 어깨를 치는사람이 있다。돌아보니 가미오꺼아이에서 함께하숙하던 일본인 학생오가다(緒方)군이다。

와세다대학문과에재학중인그는미에현(三重縣)시골에서 올라온 빈농의아들이다。고학을 하는청년이다。우리나라의포장마찻집 같은 야끼도리집에 들어갔다。그러나그는『내 오늘은 돈이있어! 자, 긴자로 가서한잔 하세』하며 내손을 끌었다。그는 초라하고, 가난하던 지난날과는 달랐다。

貧農의아들로 苦學…한집에 下宿

대학졸업반인 그는 6개월동안러시아어를 공부해요미우리신문사의신부에취직했다는 것이다。그는당당한대학생기자였다。그의노력에우선 머리가 숙여졌고 아픈 자극을 느꼈다。『노력하면 되는거야!』그는 그렇게 표현했다。하면 된다는 나의 의지가 무색해졌다。대학생운전사로 택시를 몰아 학비조달에 급급하던 내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얼굴이 화끈달아올랐다。무조건 하면된다는 내 야망의 헛점을 일깨워주고 고귀한 교훈을 남겨준것도 이 오가다군이다。외길을 열심히 걷고 한우물을 파는 열정을 배운 것이다。학생신분으로는 엄두도 낼수없는 고급주점에서 밤이 늦도록 그와 같이 크리스머스 이브를 보냈다。

내가 코리아레코드사를 경영할때 레코드판매 포스터에 내이름이 인쇄된 것을 보고『당신은 대학생인데 벌써 이름이 활자화되다니 참부럽다』고 말하던 그의 지난날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던 그가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신문사의 외신기자가 되다니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너는 대학생인데 벌써 신문기자가 되다니 참 부러운 일이다』이번에는 내가 그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다。오가다·다로,그는 나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었고, 인생의 지침을 올바르게 지시해준 고마운 청년이다。

일본사람들의 단점만을 보아온내가 일본인의 장점을 발견한것이다。그는학교를 졸업하면 특파원 자격으로 모스크바에 갔다올것이라고했다。그 끈질긴 노력과 인내심에 무한한 찬사를 보냈다。내가 귀국한뒤에도 서로 서신왕래가 있었으나 일본이 하와이, 말레이 해역을폭격한 뒤부터 소식이 두절되었다。지금은 그의 생사조차 알길이 없다。

◇東京의 밤거리 야끼도리집에서의 한때。가난한 학생들의 학문과 예술의 토론광장 이기도했다。ⓒ가 필자。

卒業당년 露語배워「讀賣」기자로

「努力하면 된다」…내人生 일깨워

波노동자戒嚴항의 전국罷業·데모

【바르샤바20日 UPI=聯合】폴란드노동자들과 반체제인사들은 지난주 계엄령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데모를 벌였으며 비밀리에 결성된『라디오·자유노조』방송이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하전단「두루코」가 20일 폭로했다。

이 전단은 폴란드국민들이 계엄령선포 만4개월전인 4월13일 전국적으로 5~30분동안의 파업과 데모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전단은 바르샤바의 일부대규모 공장에서는 자유노조깃발이 내걸리고 벽에 전단들이 나붙었으며 즈바르레이다장비공장노동자들은 이날정문에 모여 침묵기념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전단은 또『라디오 자유노조』방송이 바르샤바와 다른 2개 도시에서 조직됐으며 그다니스크와 포즈난에도 이와 유사한 방송이 있게될것이라고 밝혔다。

美·蘇회담 6월 열자

레이건 또提議

【워싱턴20日 外信=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20일 레오니드·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에게 미소간의 군비감축을 위해 오는6월 뉴욕에서 첫번째 미소정상회담을 갖고 추후 정식정상회담을 다시갖자고 제의했다。

메아리

경찰特攻隊

프랑스에서 警察에 해당하는〈폴리스〉는 파리에밖엔 없다—고 말하면 무슨 소린지 잘 모를 사람이 있을것이다。사실이 그렇다。경찰은 파리와 파리를 둘러 싸고 있는 세縣에 밖에 없고 나머지 地方에는〈장다름〉만 있는 것이다。보통 軍에서 파견되었다하여 憲兵隊로 번역되고 있다。

좀 이색적이지만 프랑스警察이 세계에서는 그 인원수나 기구조직면에서 가히 으뜸간다고할까。각국 경찰관의 수를 人口에 對比(「住民담당률」이라고 한다)해 보아도 프랑스가 단연 톱에 든다。

즉 프랑스는 주민 2백84명에 경관 1인이 있어서 西獨3백29명、이탈리아 3백44명、미국 3백62명、英國 4백1명보다 주민 1인당 경찰수가 단연 많은것을 알수있다。

루이 15世에게 警察수뇌인 사르티느는 언젠가 이런 말을 자랑스레 늘어놓았다『陛下、세사람이 모여 얘기를 주고 받고 할때 그중 한사람은 반드시 臣의 부하인줄 알아주십시오』사실 당시의 파리에서 가정부나 하인 네사람중 하나는 경찰의 돈을 받고 主人어른과 그의 주위인물들의 동정을 밀고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프랑스경찰중 파리에는〈폴리스〉외에〈갸르디앙·드·라·페〉라는 기동경찰대가 있다。고도로 훈련된 打擊부대이다。주로 군중정리를 하고 범죄예방업무를 맡고 있는데 때로는 교통정리도 한다。그러나 주임무는 무장 납치범、강력범、국제폭력단과 一戰을 겨룰때 투입되는 것。대통령관저인 엘리제宮도 이기동대가 경비한다。

英國경찰에도「特別部」라는 타격대가 있다。요인 경호、국가적행사때의 특별경계、공공건물 방호、그리고 정치적 선동자·파괴자·방해공작등을 방지하는것을 주임무로 한다。이탈리아의 경찰기동대(모빌레)는 重裝備까지 갖추고 특별훈련을 받는다。나토의 지역군 부사령관 도지어장군을 납치에서 구해낸것이 이모빌레였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인질사건이나 테러犯을 잡기위해 유능한 경찰관중 백명정도를 선발、「特攻隊」를 조직하려는것으로 알려졌다。범죄가 흉포해 지는데서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올림픽등 국제적 대행사에 대비해서도 미리 만든다는 것이다。그러나 경찰이 그 조직에서 고도화되고 기구에서 팽창해 간다면 이런 경찰기능을 적절히 조정할 장치 또한 어디엔가 설치되어야 하지않을까。미리 군살이 붙지않도록 하기위하여。

26일 美洲기구 外相회의

아르헨要求로 對英공동 措置협의

【워싱턴20日 外信=聯合】미주기구(OAS)는 20일 포클랜드군도의 위기를 토의하기위한 OAS 특별외상회의를 오는 26일 소집하자는 아르헨티나요구를 압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영국에대해 미주간상호지원조약을 발동하기위한 일단계 조치를취했다。OAS21개국가운데 18개국이 아르헨티나측의 OAS외상회의소집요구를 지지했고 미국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등 3개국은 기권했다。

레이건미 대통령은 OAS의 표결이 끝난직후 백악관에서 즉석기자회견을열고 포클랜드위기해소를위한 아르헨티나제안등 평화안이 영국에 전달되어 검토중이라고말하고 OAS에대해 미주간상호원조약(일명리오조약)의 발동을위한 표결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

라울·키하나 아르헨티나대사는 이날 OAS회의에서 영국의 침공이 임박했다고주장하고 영국은『전미대륙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륙의세력』이며 따라서 리오 조약24조에 의해 OAS회원국간의 긴급협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리오조약24조는 21개 조약서명국중 어느 한나라가 외세침략위협에 놓일경우 상호『군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오조약에 따른 외교·경제·군사제재조치를 가하려면 OAS회원국의 3분의2찬성이 있어야 하나 이날 아르헨티나의 특별외상회의소집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것으로 미루어 리오조약의 발동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案 거부한 대처首相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이 의회에 참석하기위해 보좌관과 함께 다우닝가 10번지의 수상관저를 떠나고있다。대처수상은 의회에서 포클랜드사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런던20日 AP電送=聯合】

EEC도 外相회의

헤이그 평화仲裁 전폭적支持

【브뤼셀20日 UPI=聯合】EEC(구공시) 10개국 外相들은 프랜시스·핌 영국외상의 요청으로 19일 브뤼셀에서 포클랜드(말비나스) 군도위기에 관한 특별회의를 개최,사태의 평화적해결을 도모하려는 헤이그미국무장관의 노력에 큰환영을 표시하고 이에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핌외상은 취임후 처음으로 EEC외상회의에 참석, 헤이그장관의 최근 왕복외교 결과와 이에대한 영국측 입장을 설명하는한편 포클랜드위기와 관련하여 회원국정부들이 보여준 對英결속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핌외상은 오찬을 겸한 이 비공식회의에서 또 포클랜드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정치·외교적 사태발전을 설명했다。

9월 頂上회담앞서 非同盟國 시련直面

【베오그라드21日 AP=聯合】비동맹운동은 오는9월의 제7차비동맹정상회담을 앞두고『심각한 시련』에 직면해있다고 유고슬라비아주간 다나스(오늘)誌 최신호가 20일 보도했다。

잡지는 회의개최지를 바그다드로부터 다른곳으로 옮기자는 이란의 제의가 일부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지적하고 1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란·이라크戰이 회의개막전까지 종식될 전망이『희박』하다고 덧붙였다。

西阿 갬비아共和國 외무장관 28일訪韓

西部 아프리카 갬비아공화국의 라민·키티·자방 외무장관이 정부초청으로 오는28일 訪韓한다고 외무부가 21일발표했다。

자방장관은 30일까지 머물면서 盧信永외무장관과 양국간의 협력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갬비아공화국은 南北韓 동시修交國으로 非동맹중립정책을 내걸고 있다。갬비아는 1만1천2백95평방㎞의면적에 인구는60만명이며 주요자원은 땅콩·야자·綿花·석회석。1인당 국민소득은 2백59달러이다。

말라위國 교통장관 무르디氏 25일來韓

동남부 아프리카 말라위공화국의 엘슨·바키리·무르디 교통체신장관이 尹子重교통부장관초청으로 오는 25일부터 5월1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무르디장관은 방한기간중 양국간 교통부문의 주요관심사를 협의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시설및 주요산업시설을 시찰하게 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53·2361

海外토픽

中共서 諷刺劇인기

★毛澤東·江靑등登場시켜

전중공당주석 모택동과 그의처 강청、한때 모의후계자로 지목됐던 전국방상 임표를 등장시킨 한 풍자극이 최근 북경에서 상연돼 인기를 얻고있다。

『9월13일사건』이라는 제목의 이연극은 모택동과 강청、임표사이에 얽힌 권력다툼 특히 임표의 모 암살기도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있는데 중공의 일류배우들이 각각 실존인물로 등장、사실적 연기로 관중의 인기를 끌고있다。【북경=UPI】

愛人편지 錄音우송

★英출동중軍人사기앙양케

영국해군당국은 포클랜드군도로 항진중인 영국군의 사기를 앙양하고 위로하기위한 묘안(?)으로 애인·가족·친지들의메시지를 테이프에 녹음、우송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녹음메시지우송계획소식이 전해지자 첫날에만도 무려 약1백명의 녹음희망자가 고스포트해군기지에 몰려들었는데 이번주의 녹음메시지들은 영국항공모함 허미즈호와 인빈서블호에 보내져 함상의 확성기를통해 방송될것이라는것。【런던=UPI】

首都이름 3번바꿔

★포클랜드 1주일만에

아르헨티나가 말비나스群島라고 부르는 포클랜드군도의 수도이름이 1주일도 안되는사이에 3번씩이나 바뀌었다。

영국이 포트 스탠리라고부르던 이마을은 처음에 아르헨티나가 푸에르토리베로라고 바꾸었고 그후 푸에르토 데라 이슬라 솔레다드 라고 불리었으며 아르헨티나 총독이 이곳에 부임하면서 푸에르토 데 라스 이슬라스 말비나스로 변경됐다는것。【부에노스아이레스=AP】

◇난장이父子의 공놀이 난장이 해리·맥도널드씨가필라델피아의 한 놀이터에서 역시 자라나봐야 1백50㎝도 안될 8살난 난장이 아들 브렌단군과 공장난을하며 볼을 빼앗기지 않으려하고있다。【뉴욕航空便=聯合】

한국일보

쿠폰을 가져오면 $20 할인

봄맞이대스페샬

쿠폰을 가져오면 $20 할인

★수리및 4 STEP TUNE—UP $29.95 ★무료강습

★헌재봉틀과 교환시 좋은혜택을 드립니다.

●FREE ARM
●BUILT IN BUTTONHOLER
●STRETCH STITCH
●SLANT OVEREDGE
●BLINDST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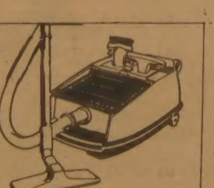
Reg. $299
Save $70
●MODEL 5144

컴퓨터식 재봉틀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Reg. $1349
Save $300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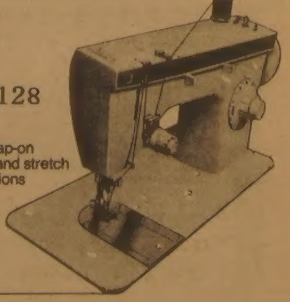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REG. $169.95
SPEC. $111.9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ONLY $128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SINGER SQUARE—ONE 쇼핑센타내
MISSISSAUGA (416) 277-0341 MR. 오

건강페이지

꽃철에 기승부리는 꽃가루病

증세와 치료법을 알아본다

본격적인 꽃철을 맞아 꽃가루(花粉)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있다。꽃가루병이란 각종 꽃가루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일종의알레르기성질환。따라서 꽃가루병은 봄에서 여름을지쳐 가을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승을 부린다。꽃가루병의 정체와 증세 치료법을 서울대의대 내과 金有璧박사에게 알아보았다。

콧물 재채기 심하면 喘息유발
근본치료엔 몸속 抗原찾아야
免疫기능의 과민反應서 발병

◇꽃은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종종꽃가루병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기도한다。(사진은 특정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음)

◇金有璧박사

〈정체〉꽃가루병은 몸안의 抗原 抗體반응으로 나타나는일종의알레르기성질환이다。인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有害물질을 물리치기위해 免疫기능을 갖고있다。예를들어 병을 일으키는 細菌이 몸안에 들어오면 淋巴球세포는 즉시 적의정체를파악、이들을 쳐부술군사를 길러낸다。면역반응이란 바로 이같은 반응을말하는데 적에 해당하는 물질인세균이항원、이에 대해서 싸울 군사가 바로항체이다。

외부로부터 우리몸에 들어오는 이물질가운데는 건강에 이로운것과 무해무더한것、그리고 해로운것등 세가지종류가 있다。정상적인 면역기능은 이중 건강에 해로운 물질에만 반응을 나타내도록되어있다。

그러나 간혹 사람에따라서는 특정한 무해무더한물질은 말할것없고 이로운 물질에이르기까지 적으로 잘못알고항체를 만들어 내는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일이있다。그래서 이들 물질과 공연한 싸움을 벌여 소란을 피운다。꽃가루병은 바로 이같은 면역기능의 과민반응으로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증세와 발생빈도〉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며 코가 막히는등 가벼운 감기증세를 나타내는것이 대부분이다。사람에 따라서는 코와 인후、눈에 가려움증을 나타내고 熱症을 일으키기도 한다。알레르기성비염을나타내는일도 흔하다。심하면 천식발작도 인다。

미국의 경우이같은 알레르기성질환을 앓는 사람은 전국민의 10%에이를 정도로흔한 병가운데하나로되어있다。우리나라엔 통계가없어 정확히알수없지만비슷한수준일것으로 보고있다。실제로계절마다도지는알레르기성비염은거의대부분 꽃가루병으로 보아도 좋다。

꽃가루병을 일으키는 꽃은 주로 바람의 힘을빌어 수정을하는 風媒花。

꽃가루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다。봄엔 주로 소나무 오리나무와 같은 나무의 꽃가루가 문제를 일으키고 여름엔 잔디와 같은 牧草의 꽃가루가、늦여름에서 가을엔 잡초가말썽을 빚고있다。

〈치료와 대책〉치료는 對症요법과 면역요법。원인물질을 피하면서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을동원하게된다。

대증요법이란 기침이 나면 기침을 멎게하는 진해제를 쓴다든지 증세에따라 이를 완화해주는 일반요법。면역요법은 원인이되는 꽃가루(抗原)를 찾아내 이들 물질을 병이 발병하지 않을 정도로 소량씩 몸에 주입、몸안에 차단항체를 만들어주는요법이다。그래서 이를 脫感作요법 또는 減感作요법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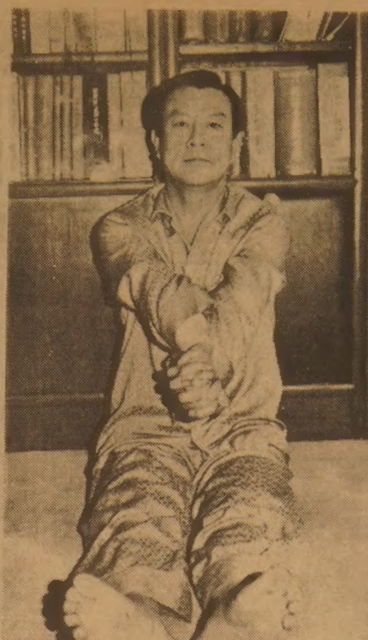
꽃가루병이 발병하려면 꽃가루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감감작요법은 바로 이같은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따라서 감감작요법은 꽃가루병을 치료하는 근본요법이 된다。하지만 원인물질을 찾아내고 몸안에 충분한 차단항체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간단치 않다。원인물질을 찾아내는 일도 힘들뿐 아니라 일단 원인물질을 찾아낸다해도 이를갖고 감감작요법을해도 빨라야 6개월정도의 긴기간이 지난후에라야 어느정도의 반응을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과민반응은 온도、습도、전서등의 급격한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따라서꽃가루병을앓는사람들은이들환경의 급격한변화를피해야한다。

건강합시다

코피 안마시고 아침마다 요가와 물구나무서기

宋炳循 〈국민은행장〉


◇宋炳循 국민은행장은 자신의 건강비결은 요가에있다고 말한다。

宋炳循(53) 국민은행장。요즘 금융서비스 근대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화폐발행고에 대한 통화량 비가 60%에 이르고 있어요。이는 선진국의 25%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많은 현찰이 개인 주머니와 집안의 장롱속에 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宋행장은 이는 바꿔 말해서 선진국에 비해 35%나되는 많은 돈이 금융자산이 되지못하고 낮잠을자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 설명한다。

인건비가 기업의 매출액중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분의1 정도。그런데 이같은 인건비가 지출되는 과정을 보면 옛날과 달라진게 별로 없다。은행에서 현찰을 뽑아내 이를 월급봉투속에 일일이 나눠 넣어 개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것이다。그러나 선진국에서 월급봉투가 없어진것은 벌써 오래전의일。기업주는 이같은 번잡스런 일을 수표한장으로 거뜬히 해결하고 있다。기업주가 떤 수표한장이 은행에 들려지면 은행은 이를 개인의 월급액수에따라 개인구좌에 넣어주고 전기료、전화료를 비롯、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예금구좌에서 뽑아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도 한다。송금도 전화 한통화이면 가능하다。

宋행장의 요즘 바삐돌아가는 나날은 바로 이같은 금융서비스의 근대화를위한것이라했다。『융자받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공급이 수요를 따르지못하기 때문이지요。그러나 금융서비스가 근대화되면 이같은 현상은 뒤바뀌게 될것입니다』

宋행장의 금융서비스 근대화에대한 변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요즘의 은행원은 예금을 유치하느라 애를 쓰고 있지요。그러나 앞으로의 은행원은 융자할곳을 찾아나서게 될 것입니다』

키 1m70cm、몸무게 70kg、20년동안 거의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담배는 하루 50개비를 피울정도의 헤비·스모커、술은 즐기는편。그래서 저녁이면 위스키 3샷정도를 반주하는 일이 흔하다。음식은 가리는 것이 없다。

코피는 가급적 피하고있다。코피대신 홍삼차를 즐겨 마신다。전매청 차장시절(76~79년)인삼의 효용을 알게되면서 부터라 한다。

건강에 관한한 자신이 있단다。얼마전 지방분점의 금융서비스 근대화를 독려、점검키위해 하루에 1백~3백㎞씩 달리는 자동차행군을 1주일정도 강행했지만 피로라곤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宋행장은 이같은 자신의 건강비결은 요가에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6·25때 괴뢰군에 붙들려 무던히 맞았어요。그때 척추를 다쳤읍니다』

宋행장은 그때 다친 척추가 66년 말썽을 일으킨 일이 있다고 했다。그래서 몇년간을 척추신경통으로 고생을 했다고。

宋행장이 요가를 시작한것은 73년。우연한 기회에 요가책을 읽게된후부터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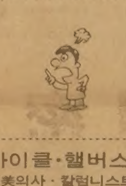
『요가는 단전호흡부터 시작합니다。반듯이 앉은 자세에서 20분정도 단전호흡을 하다보면 정신이 맑아집니다。그리고 누운자세→선자세의 순으로 요가자세→엎드린자세→다시앉은 자세를하고 마지막 물구나무서기를 10분정도 합니다』

宋행장은 이같은요가는 주로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침을 이용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시간나는대로 아무때나 하게된다고 했다。요가를 하게된 이후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를 모르게 되었다며 요가예찬론을 편다。

【李光榮기자】

화가났을땐 참지말고 화를내라

건강名言



마이클·핼버스탬
〈美의사·칼럼니스트〉

마이클·핼버스탬은 미국 의사이면서『최근 의약품』이란 저술도가진 의약잡지의 칼럼니스트다。

그는「怒·忿」의 東洋的 명언에 대해 의학적인 반론을 제기하고있다。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아우는 비명을 지르며 운다。보스를 설득못한 사원은 얼굴이 붉어진다。오랫동안 식당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부인은 남편을 보자『뭐예요』하고 앙칼지게 고함치기도 한다。

주위분위기에 따라 이런행동은 무례、克服心부족、관기등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화를 내는것은 배고픔、피곤、사랑、슬픔、기쁨과 똑같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感情이다。

문제는『왜 화를 내는가』를 모르고 화가 나는것이다。축적된 분노는 곪긴 상처처럼 사람들의 몸、마음、사람들과의 관계를 상하게 한다。화를 내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게되거나 너무자게된다。혈압을 높여 마침내는 심장마비까지 일으키게한다。목에 힘을주게하고 골치를 아프게하며 위궤양을 가져온다。화를 참으면 성욕이 감퇴하고 임포에까지 이른다。

사람들은 어렸을때부터 화를 누르는 방법만 배워왔기에 화를 곧장내는법을 모른다。첫째의 방법은 자신을 화내도록 내버려두는것이다。이렇게되기에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화가 났을때 화를 내야지 3시간후、하루、달이지나 내는것은 병이 된다。

화를 풀어내기위해 조깅、펀치·백을 치거나 넘마를 찢거나 투창을 던지거나 편지를 쓰거나 비명을 지르는게좋다。이런행위는 전연 건강에 해롭지않다。

더해로운것은 울화가 마침내 자신을 폭발시키는것이다。

麻藥亡國

동남아 3國의 실태

알콜·담배·마약등 유해약물의 범람과 오용및 남용은 세계각국에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유네스코가 발행하는 잡지『꾸리에』4월호는『약이 사람을 먹는다』는 전권특집을 통해 약물과용문제、특히 마약남용을 다루었다。다음은 이 잡지가 보도한 태국·말레이지아·인도등 아시아3국의 마약사용 실태이다。우리도 청소년들의 환각제 남용을 막기위해 눈여겨 볼만한 문제다。

태국 社交모임엔 의례阿片이
말聯 젊은층들 헤로인 常用
인도 暗市場서 마리화나密賣

◇어른들의 약물과용은 어린이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칠수 있다。피해의 동반은 철저히 예방되어야한다。그림은 마약중독여성의 태중에있는 아기가 중독을두려워함을 상징하고있다。

▲태국=북부고원지대에 사는 호몽族은 아편을 상용하고있다。그들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아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가족을 잃었을때 우울증을잊기위해 사용하기도 한다는것이다。또는 기분전환의 수단으로 마을의 사교모임이 열릴때 술·담배·차와함께 아편이 나오기도한다。이 부족은 10살까지는 아편과 술·담배를 금하고 있으나 10살이 넘으면 그것을 즐길 권리가 인정된다。아편의 중독이 해롭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3분의2가량은 아편상용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아편의 신속한 치료효과를 강조하며『적절히만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한 나머지 애용하다가 중독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어른들이 어린이나 가족앞에서 공공연히 아편을 피우고 젊은여자들까지도 중독이되어 숨어서 피우는 사례가 많다。

▲말레이지아=전통적으로 가족끼리의 모임이나 결혼축연장에서 피어왔으나 최근 젊은이들은 이 영역을 무너뜨렸다。집에서、다방에서、디스코클럽에서、뒷골목술집에서、어디서건 끼리끼리 모이면 담배처럼 많은 헤로인을 피운다。

이 나라에서는 바다에서 하루15시간씩 일하는 어부들이 기분전환을위해 주로 피웠는데、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되고있다。젊은이들을 상대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7%는 호기심、31%는 동료의 영향으로、18%는 자신의 문제를 잊기위해 헤로인을 피운다는 것이다。

이들이 마약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첫째 이질적문화집단에 적응하기 위한것이고 둘째는「태만하고 반항적인 행동의 한표현、또는 막혀버린 기회와 경제적 곤란에서오는 좌절감에대한 자가치료」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이다。세번째는 개발도상국、특히 급격한 산업화과정을 밟고있는 사회의 분위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기성세대보다 포부가 크고 더좋은 교육을 받고있지만 동시에 교육과 직업에서 치열한경쟁을 치르지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좌절하기 쉽고、그래서 도피구를 찾기위해 헤로인을 찾는것이다。

▲인도=아편과 마리화나가 만연하고 있다。마리화나와 아편사용이 오래전부터 금지되어 있으나 암시장의 공급은 줄지않는다。재미나는 현상은 마리화나의 공급규제가 완화돼 구하기 쉬워지자 소비가줄었다는 사실。

그러나 아편은 아직 줄지 않고있다。아편의 생산·공급이 계속 법의 규제를 받고있기때문에 정부의 집계보다 생산·사용량은 많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2〉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明暗 ㉘

그러나 졸업식장에서 마주친 인재의 노모의 모습은 수지에게 아름다운 추상이었던 가난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인재가 수지의 얼굴에서 읽은 것은 바로 그런거였다。그래서 인재는 그렇게서둘러서 노모에게 야간열차를 태운 것이다。

그렇다고 한번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들킨이상 지난날이 다시 시가 되고 동화가될수는 없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그걸 안 이상 인재는 좀더 정직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직하게 말해서 인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건 그의 지난날 가난의 구체적인 모습을 수지에게 들켜서가 아니었다。더이상 무지개일수없게 된、그가 [illegible]에 도달하고 만 성공이란 것의 정체의 그 보잘것 없음이었다。

그의 가능성이 무지개였을때、따라서 수지와 동행했을때、수지네가 부자란 걸로 열등감같은 거 느껴본 적 없었다。염두에 두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되레 수지에게 부모가 없다는 걸 트집 잡아야할 흠처럼 내심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무지개를 잡고보니、아니 성공이란 그 빛 좋은 개살구를 손에 넣고보니 수지네처럼 서울서 그만큼 산다는 건 실로 위대해 보였다。아니 수지네보다 훨씬 못살아도 좋으니、여섯자 몸을 편히 쉴수있는 한평의 땅이라도 서울바닥에 제 몫으로 가진이는 모두모두 위대했다。

그가 성공한 댓가로 다달이 받는 월급은 한평의 땅을 위한 저축은 커녕 수지의 거침없는 씀씀이를 대기에도 크게 모자라는 거였다。그러니 수지가 은근히 비친 양친이 없는 대신 오빠가 떼어주기로 했다는 수지 몫의 적지 않은 부동산은 그에게 군침을 삼키게 하기보다는 일찌거니 두 손을 들고 싶게 할 수 밖에。

그가 거둔 성공이라는게 감히 군침을 삼킬수 있는 자격에도 미달하는 거였다니。

그는 취하지도 않았건만 취한것처럼 비틀비틀 거칠게 서울의 하늘에다 대고 주먹질을 했다。그러나 거기 이미 그 원수놈의 무지개는 걸려있지 않았다。일단 그 부스러기라도 따먹은 이상 아마 그것을 다시 보는 일은 영원히 없으리라。

그는 명실공히 빈털터리였다。영영 울고싶도록 허전했다。

문득 어쩌면 하숙집에 수지가 와있을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그는 열심히 그 생각에 매달렸다。

오늘 선을 봤다는 얘기는 꾸며댄 얘기거야。여지껏 서로 간밤에 꾼 꿈도 감춘일이 없는 사이거늘、그에게 장미 꽃다발을 주고나서 금새 선을 보러갈수는 없었을거야。

수지는 그렇게 요망한 여자가 아니거든。설혹 계략에 빠져 뜻하지않게 맞선을 보았대도 지금쯤 빠져나와 하숙방에서 나를기다리고 있을거야。수지만 만나면 서로가 기운다는 생각이 한낱 망상이었음을 단박 알게될거야。우린 서로 사랑하니까。사랑의 무게에다 대면 그밖의 조건들은 깃털을 더하거나 빼데 지나지 않을테니까。

그는 이렇게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며 어느 틈에 집까지 왔다。

아니나 다를까、하숙집 아줌마가 여지껏 기다리다 방금나간 수지를 못만난걸 인재보다 더 안타까와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어어 좋아가봐、어여、아직 버스종점꺼정도 못갔을거구먼。색시가 새초롬허니 풀이 없는게 싸운가보던데 싸운건 그저 그날로 지딱지딱 풀어야써。꺼두면 큰병돼』

流星의 賦 〈364〉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고독한 英雄 ⑲

당시 명나라는 조선의 사정에 깊은 의혹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경경하게 행동하려 들지 않았다。왜군에 조선병이 많이 섞여 향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대체로 조선병을 신용할 수 없다는 정보도 유포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내부(內附)를 바라고있는 조선왕은 가왕(假王)일지 모른다고까지 하는 자가 있었다。우선 그 사실부터 밝히기로 하고 명조(明朝)에선 송국신(宋國臣)을 차관(差官)으로 보냈다。송국신은 학사 황홍헌(黃洪憲)의 가정(家丁)이었는데 일찌기 황학사를 따라 조선에 온 일이 있고、그때 임금을 뵌적이 있어 선조의 얼굴을 안다기에 그를 보낸 것이다。

일개 학사의 가정이 임금의 진부를 조사하게 된 것이니 참괴 막심한 일이나 그런것을 따질 도리는 없었다。송국신은 돌아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일렀으나 요동으로 건너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국왕은 사직을 중하게 여기고 멀리 떠나오지 말라』는 통첩을 보냈다。

그래도 임금은 24일 요동으로 건너가겠다고 소리쳤다。대신들은 입을 모아 아뢰었다。

『이런 말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신민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그 혼란은 수습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적이 근접해 온다고 해도 하삼도(下三道)가 아직 온전하옵고 강원도와 함경도도 아직 별 탈이 없읍니다。요동 사람들은 풍속이 우리와 다르고 언어도 다르옵니다。그런 곳에 납시어 그들의 소모(笑侮)와 무례(無禮)를 어찌 감당할 것이며 풍토와 음식을 어떻게 견디시려 하시옵니까。또한 명나라의 군사가 온다고 하면 이들을 향도하는 우리의 군사가 있어야 하지않겠아옵니까。이 향도군을 모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의주에는 사병 1천명이 있고、과거를 보이면 일시에 소집한 수가 있읍니다。병조에서 내일 시사(試射)를 실시하겠아오니 상감께선 잠깐 이곳에 계시다가、적의 상황을 살피신 다음 강위로 올라가셔서 벽동(碧潼)에 며칠을 유하시고、때에 따라선 그 길로 함흥으로 갈 수도 있아옵니다』

임금은 할 수 없이 그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윽고 임금은 명나라에서 수행인원을 제한하고 거처로 선 관전보의 빈집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듣고 요동으로 건너갈 생각을 포기했다。

바라고 바랐던 명나라의 원병이 압록강을 건너온 것은 6월24일。그 선봉장은 참군 곽몽징(參軍 郭夢徵)이었다。

이날 임금은 의주 서문 밖에서 이들을 출영하고 용만관에서 예식을 거행했다。신종황제는 2만냥을 임금에게 보내오고 대홍저사(大紅紵絲)이표리를 보내어 위로의 뜻을 표했다。

명나라에서 원병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국내의 사기가 일시에 진작된 느낌이었다。

이때 일본군의 진격 상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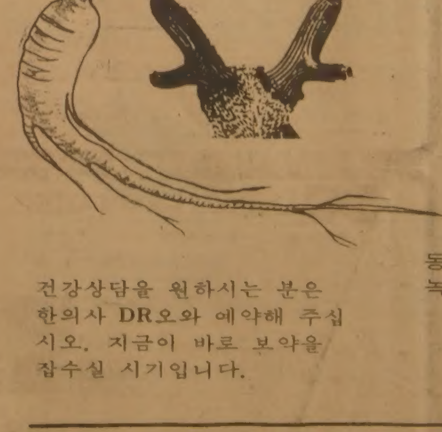
소서행장(小西行長) 평안도 (평양이남)
가등청정 (함경도 북진중)
흑전장정 (황해도 평양에서 남하)
복도정칙(福島正則) 충청도、경기도 일부
모리길성(毛利吉成) 강원도、유격활동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 경기도、한성중심

그리고 각지 점령지구엔 5백 내지 2천명의 주둔군을 배치하고 있었다。

533-2361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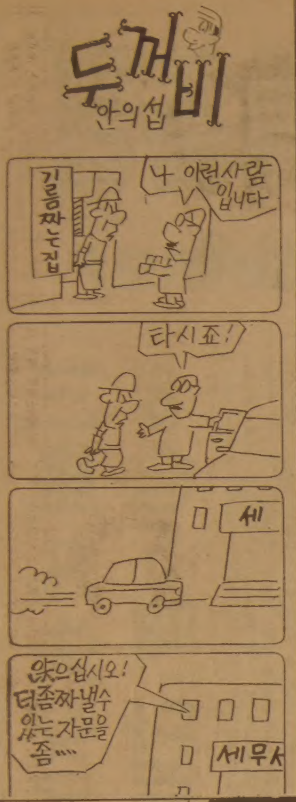
광고요원 모집

업무량의 격증에 따라 본사 광고요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의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인원 : 약간명 (Full or Part time)
◎자 격 : 영주권을 지닌 한인교포로서 광고업무와 경리업무에 흥미있으신 분.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1통(
◎응모마감 : 1982년 4월30일

※응모희망자는 직접 내사바라며, 광고업무에 따른 보수등은 본인과 협의하여 결정함.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광고국장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에메랄드·루비·사파이어·진주·오팔
536-1692

"더 이상 物議없기를"

"宣敎協성명、전체 意思아니다"

基督敎界 일각서 自省論일기 시작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柳虎濬기독교방송이사장)는 21일상오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모임을갖고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의 성명과관련, 문제의 성명이 전체기독교의 의사와는전혀무관한 것이며 이번사건이 더이상 교회와사회에 큰파문을 일으키지않게 되기를 바란다는내용의 성명서를 발표,기독교계가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진통하며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고있음을 나타냈다。

이날 협의회에는 20여명의 회원가운데 韓景職·趙鏞基목사、姜信明崇田大총장등40명이 참석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같다。

한국기독교지도자 협의회 聲明발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21일 상오8시 전체회의를열고 최근 지상에 보도된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내용을 검토하고 이로인해 야기된 사태에대해 우리입장을 다음과같이 밝힌다。

①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명의의 성명서가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체기독교회가 反美감정을 갖고있는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된 사실과 이같은성명이 몇몇교직자들에 의해 발표된데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②우리는 그협의회의 성명이 전체기독교의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임을 확실히 밝힘과동시에 지금까지 지속된 韓美간의 유대와 우의에 아무런변화가 없을것임을 확신한다。

③우리는 그들의 성명서가 남침의기회를 노리는 북한공산집단에의해 악용될것을 우려하며 교회와사회를 이간하는등 국민화합을 저해하는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④선교1백주년을 바라보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정신으로 이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계속수행할것이며 불순한 세력이 교회안에 침투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할것을 다짐한다。

⑤우리는 이번 사건이 더이상 교회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되기를 바란다。」

이날회의에 참석한 주요인사는 다음과 같다。

▲柳虎濬목사(기지협회장)▲韓景職(영락교회 원로목사(예장—통합))▲姜信明(숭전대학교총장(예장—통합))▲崔聖園(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姜元熙(기독교침례교회총회장)▲池元祥(루터교 총회장)▲鄭晋慶(기독교성결회총회장)▲曺明錄(기독교하나님의성회총회장)▲韓琰喆(기독교 하나님의교회감독)▲劉洪默(기독교 하나님의 교회총회장)▲金玎浩(기독교성결회 증경 총회장)▲金喜澤(기독교 성결회 증경총회장)▲朴丁根(기독교 하나님의성회 증경총회장)▲辛信默(예수교 감리회 증경감독)▲韓錫址(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증경총회장)▲朴明元(기독교성결회증경총회장)▲金昌仁(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증경총회장)▲朴霽峰(기독교감리회증경감독)▲이상모(기독교침례회부총회장)▲金玄中(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부총회장)▲朴聖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무)▲김용도(기독교침례회총무)▲민영완(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무)▲張錫仁(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무)▲李鳳星(기독교성결회총무)▲梁光錫(예수교성결회증경총무)▲趙鏞基(여의도순복음교회목사)▲강경규(기독교장로회 능곡교회목사)▲金仁得장로(한국기독실업인회전회장)▲吳建(기독교장로회장로)▲金景來(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평신도회장)▲劉相烈(기독상조회회장·기감장로)

◇한국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회원들이 21일상오 코리아나호텔에 모여 「선교협」의반미성명이 일부인사의 의견일뿐 전체 기독교와관련이없다는 내용의 성명을발표하고있다。

설탕과자 만들던 알콜통爆發

놀이터서 두어린이 火傷입어

【釜山】20일 하오5시께 東萊區釜谷洞16 어린이놀이터 앞길에서 설탕을녹여 과자를 만들어팔던 김영숙씨(58·東萊區東成1洞62)의 알콜통이 폭발, 과자를 사먹던 현숙양(10·동현국교3년)과 같은반친구 권정화양(10)등 두어린이가 전신에 2주의화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김씨가 불길이 남아있는 알콜통에 알콜을 더붓는순간 폭발해일어났다。

과부황새 10년설움에 운다

——우리나라 1마리뿐인 천연기념물

無精卵 부화안되자 깨버려 失意속에 둥우리서 외로히

【충북陰城=金薰기자】 10년수절의 과부황새는 둥지 위에서 꼼짝도 않는듯했다。그러나 실은 요동치고 있었다。온몸이 터져나가도록 헐었고 두발은 계속 경련했다。북받치는 슬픔과 한으로 몸결치면서도 그격정을 억누르느라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그녀는 막 과부의 몸으로 대를 잇겠다는 소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고있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단한마리뿐인 충북陰城郡笙極面舘城里의 과부황새 (천연기념물199호)가 春情의 배란충동을 이기지 못해 무정란3개를 낳았다。과부 황새는 암컷의 본능으로 이 허망한 무정란3개를 10여일째 품어왔으나 생명의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악취와 함께 썩어가기 시작하자 자신의 주둥이로 알을 쪼아 깨뜨려 둥우리밖으로 밀쳐내버리고 말았다。

◇과부황새가 생명이 될수없는 무정란 3개를 스스로 깨뜨려버린후 동우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알 껍질을 내려다 보고있다。 【金海雲기자찍음】

자연壽命 18년중 이제 3~4년 남겨놔

주민들 "새 신랑이나 데려다 주었으면…"

과부황새가 알을 낳은것은 지난4월10일께。황새지점관리인 尹洪九씨(36) 집앞 아카시아나무 위 둥우리였다。먹이를 물어다 줄 남편이 없는 이 과부황새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기 위해 마을 앞 저수지에 다녀오는 시간 외에는 정성스럽게 둥우리에 들어앉아 따스한 배밑의 체온으로 알을 품기시작했다。

그러나 황새관리인 尹씨는 『돌멩이와같은 무정란의 부화를 기다리는 과부 황새의 모습이 안스러워 황새 동우리를 쳐다보기도 싫었다』고 말했다。精이 없는 알이 썩기시작하자 과부황새는 지난 17일 알 3개중 2개를 포기 부리로 쪼아 둥우리밖으로 밀쳐내고 남은 1개만을 계속 품었다。그러나 마지막 남은 1개 마저도 태기의 조짐이 없이 썩어버리자 과부 황새는 20일 밤 알을 쪼아서 길 바닥에 던져버렸다。

알을 모두버린 과부황새는 높은 옥타브로 울면서 둥지를 떠나 논두렁으로 날아가 몇시간동안을 미동도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절동새가 피나게 울어대는 어두운봄산속으로 날아들어갔다。과부 황새는 21일새벽3시께야 아카시아나무위텅빈둥우리로다시 돌아왔다。그리고는둥지를 계속지켰다。나무밑둥에 귀를대고 들어보니 빈둥우리에서잠을 이루지못하고 뒤척이는 과부황새의 몸부림은격렬했다。부스럭거리는소리가내내들렸다。

과부황새와 10년전에 죽은 수놈황새는 지난71년4월 그 서식이 학계에 보고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지 3일 만에 숫놈 황새는 밀엽꾼이 쏜 산탄 총에 맞아 비명에 횡사했다。

황새가 씨가말라 재취해볼 희망도 전혀없는 이 과부황새는 그후 10년간 이 마을에서 외로운 둥우리를 지켜왔다。수놈이 살았을때 새끼20여 마리를 낳았으나 남획과 서식지오염등으로 모두 죽어버리고 단한마리도 확인되지 않고있다。

수놈이 죽자 과부황새는 옛날의기억을 감당하기가 괴로왔던지 즉시 동우리를 옮겨尹씨의집뒤 밤나무에 새로운둥우리를 만들었다。이때 부터 과부황새는 尹宇鎭노인(작고·현관리인尹씨의선친)의 보호를받아왔다。수놈이죽은 후 과부황새는 옛날처럼 동우리를탄탄하게 짓지않아바람에 무너져내리곤해 늙尹노인이 둥우리를 지어주었다。

그후 지난80년5월 尹노인이 세상을떠나자 과부황새는 또다시 4일만에 둥우리를옮겨 尹노인의 빈소옆 아카시아 나무위 (현재의 동우리)에 새로운 둥지를틀었다。상반신조차 제대로 가릴수없을 정도로 엉성하게지은 둥지였다。주민들에 따르면 과부 황새는 수놈이죽고난이후 동우리를 정성스레짓지도않고 망가져도 고칠생각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암·수가 함께 지내던 시절에는 그토록 열심히 동우리와 새끼를 지키던 황새는 과부가 된 이후로 귀소시간이 불규칙해져 하루 종일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녘에울면서 돌아와 부스럭거리는때가 많아졌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둥지에 마음을 붙일수도 없겠지만 나돌아다닐 바에야 새 신랑이나 모셔왔으면 오죽 좋겠는가』한는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이 과부황새의 호소할길없는 春情에는 실로 種 전체의 최후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다。과부황새는 이제 평균자연수명 18년중에서 3~4년밖에 남지 않은 늙은 암컷이다。

◇과부황새가 10여일을 품은후 길바닥으로 차내버린 무정란 껍질。껍질속에는 썩은 내용물이 엉겨 붙어있었다。

히로뽕密造團 검거 42億원어치 팔아와

서울시경은 21일 서울城北區吉音2洞1272의95 孫同鎬씨(40) 집을 덮쳐 히로뽕을 제조중이던 孫씨와 부인權滿順씨(33)를 검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 秋光明씨(33·서울道峰區彌阿洞301의50) 權常春씨(41·서울鍾路區昌信洞23의377)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의하면 히로뽕제조기술자인 秋씨는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검거된 형제파마약 제조단 權赫眞등의 잔당으로 지난해 4월 서울에서 밀조단을 재조직, 孫씨가 4백50만원에 집을세내 지난해 12월께 6kg, 지난2월12kg, 3월말 69kg 지난16일께 15kg등 모두 42kg(싯가42억원상당)의 히로뽕을 밀조,팔아왔다는것이다。

孫씨부부는 히로뽕 1kg을 제조하는데 40~45만원의 사례금을 받아왔으며 원료구입, 판매는 수배된李씨가 부산에 출장, 도맡아왔었다。

免許대여藥局 입건 釜山地檢,일제수사

【釜山】부산지검은 약사면허증을 빌려 약을 조제 판매해온 약국에 대한 일제 수사에서 21일 약국운영자14명과 면허대여 약사 14명등 모두28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船】

"시끄럽게떠들어서 국가利益될것없다"

金壽煥추기경 밝혀

金壽煥 추기경은 21일 金勝勳 신부등 9명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고있는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몰라 뭐라고 말할수 없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국가에 유익할것이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하오2시 서울鍾路區惠化洞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열린 서울대교구 사제총회에 참석했던 金추기경은 이날 말하고『사제총회에서 최근의 사태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金추기경은 교회선교협의회의 성명자체에대한 논평을 요구하자 구체적인 답변을피했다。

金추기경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사제총회에서 신부들에게『최근의 사태를 조용히지켜보자』고 당부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사제총회에는서울대교구산하의 한국인 신부2백9명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崔基植신부拘束에 原州서特別미사

【原州】20일하오8시原州시내園洞성당에서전국1백13명의 신부와8백여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崔基植신부를 위한 미사에서 原州교구청 金鍾泰총대리신부는 강론을 통해 이상이 말하고 『현정부는 崔신부를 구속해 놓고도 천주교가 불온단체의 온상인양 몰고가고있으니 이것은 한국 천주교 1백40만 신도의 전체문제로보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金신부는 또『崔신부가 사제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생각한다』고 말하고『정부당국은 우리에게 자제를 호소하고 있으나 먼저 정부가 우리들이 자제할수 있도록 흑백을 가려달라』고 말했다。【船】

데이트族에 폭력 20代5명을 구속

【群山】전북群山경찰서는21일 유원지를무대로 데이트족만을골라 폭력을휘둘러온 안광옥(22·群山市東南洞383)을 강도 강간혐의로, 김병선(21·전북扶安郡扶安邑東中里131)유순용(21·群山市개복동63)추문수(22·〃) 양이석(22·〃新豊洞909)등 4명을 특수강도및 강도상해 강간미수등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18일 하오9시께 시내미룡동은파유원지에서 데이트 하던 고모씨(36·群山市文化洞)와 전모양(25·〃米原洞)을 흉기로위협 숲속으로 끌고가 고씨로부터 현금6만원을 빼앗고 전양의 손목시계1개와 핸드백속에들어있던 현금 7천원을 강탈한후 전양에게 욕을 보였다는 것。【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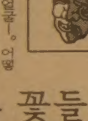
師範살해범 鄭慶鉉 大邱地法, 死刑선고

【大邱】대구지법형사합의3부(재판장 李勇雨부장판사)는 21일 대구당랑관수석사범 金正民씨 살해범 鄭慶鉉피고인(22)에 대한 살인,사체손괴 시체유기죄 선고공판에서 鄭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船】

4·19의 문지기

12년째 墓域관리해온 姜大興씨

못다핀 젊은 꽃들의 다정한 친구



「4·19」기념일이 찾아올때마다 姜大興씨(44·사진)는 가슴이 저린다고 했다。「4·19」묘지 (서울道峰區水踰洞) 관리인이란 직책때문에 기념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줄을 모를 정도로 바쁘면서도 마음이 텅비는 듯한 공허감을 억제할 수가 없단다。

이른아침부터 찾아오는 참배객을 안내하랴, 3년전부터 이곳에서 거행되는 기념식준비를 하랴 무척 바쁘다。

이날따라 평소엔 보기힘든「높은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구청에서 각종지시도 계속 내려와 긴장을 풀수가 없다는것。

짧은 스포츠형머리, 자그마한 체구、순박하게만 생긴 얼굴—。어떻게보면 그의 모습에서、역사의 현장에서 외롭게 산화해간 젊은 영령들과 12년째 마음의 대화를 나누며 살아왔다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털어놓는 그의 말을 듣고있노라면 어느사이 그가 못다핀 젊은 꽃들의 다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느끼게된다。

『경건하고 엄숙해야할 4·19기념일의 묘역이 하루종일 어수선하기만 해 어쩐지 마음에 걸립니다』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다 숨져간 외로운 넋들의 안식(安息)이 방해받을 것이 안스럽다는 뜻이다。

道峰구청 정규고용원인 姜씨가 2백2명의 4·19의거 희생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은 지난 71년2월부터。4·19유족회의 소개로 노모와 가족들과 함께 방2칸짜리의 사택에 입주할때까지만해도 셋방살이를 면하게됐다는 기쁜 생각이 앞설 정도로 4·19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그러다가 묘역을 알뜰하게 가꾸어오면서 앞서간 영령들과의 무언의 대화에서 姜씨의 의식은 놀랄정도로 많이 변했다는것이다。

처음 몇해동안은 4·19가 찾아와도 영령들의 영전은 초라할정도로 쓸쓸해 안타까왔지만 어느날 갑자기 정치인들과 젊은 대학생들이몰려와 떠들썩한 것을보니 오히려 죄스러운생각이 든다고했다。한동안 묘역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영령들은 제단앞에 놓여지는 크고 비싼화환도 젊은학생들이 부르는「전진의 노래」도 바라지 않을것 같습니다』고 무심코 한마디했다。

그의 이말은 친구들인 4·19영령들이 원하는「세상」은「어수선」한 것이 아니고「안정된 사회」라는것을 얘기해주는것 같았다。【姜秉泰기자】

구독신청은
(416)
533·2361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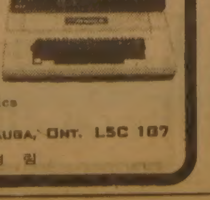
급 매
* 사진식자기 1 대 *
※일본제 샤켄 모델 Spica-K
※자판 3 개
※성능 우수함

한국일보사 ☎ : 533-2361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Bay
Temperance St.
Ⓟ
Yonge
King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4관왕 趙治勳 本因坊戰 難敵 고바야시 挑戰받아

曺薰鉉·徐奉洙 國棋戰 이달末 결판

이달말과 내달중에 한국과 일본에서 근래보기 드문 큰 對局이 벌어진다. 名人本因坊 十段 碁聖杯등 4개타이틀을 장취, 하늘을 찌를듯한 전성시대를 구가하고있는 趙治勳 4관왕이 5월26, 27일 숙적 고바야시(小林光一) 9단과 本因坊戰 7번승부 제1국을 두며, 한국에서 名人·國手·覇王·棋王·最高位등 5대 타이틀을 석권, 제1고수자리를 지키고있는 曺薰鉉名人이 동갑나기 맞수 徐奉洙 國棋와 30일 국기전도전 5번승부 결승국을 두는것. 두나라 棋界의 판도를 가리는 두 빅게임은 한일 바둑팬의 관심을 모으는 大會戰이 될것으로 보인다.

30일 타이틀판가름

○…숙명의 타이벌인 曺薰鉉8단과 徐奉洙7단이 제7기 國棋戰도전전에서 2승2패를 기록, 30일 결전을 벌이게 된다.

지난해 曺8단으로부터 타이틀을 뺏은 徐國棋는 이번 도전기에서 2승1패를 기록, 무난히 타이틀을 방어하는듯 했으나 지난18일 浦項호텔에서 열린 도전기 제4국에서 曺8단에 진것.

바둑소식

이날 대국에서 흑을 쥔 曺8단은 2백39수만에 반면11집을 남겨 덤 5호半을 제하고도 5호半을 이겼다.

國棋戰의 타이틀이 판가름나게될 제5국은 30일열리게 되는데 현재 국내타이틀 7개중 5개를갖고있는 曺8단이이길 경우 타이틀은 6개로 늘어나 天下統一의 문턱까지 도달하게된다. 曺8단은 지난10일 열린 제16기王位戰의 도전자결정3番棋 제1국에서도 金在九7단을 꺾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있다. 그는 이날 집백으로 1백84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어 남은 2국중 1국만 이겨도 徐奉洙王位에게 도전하게된다.

同門끼리 4強속에

○…지난17·18양일간 열린 韓國棋院杯쟁탈 제2회全國實業聯盟戰 준준결승에는 京畿高출신들이 4명이나 진출하여 눈길을 모았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각 대국마다 1명씩 배정되어 자칫했더라면 京畿高출신들끼리 준결승을 치를뻔했다.

그러나 준준결승에서 1명이 탈락한 바람에 준결승에는 신병식씨(MBC) 함철씨(코오롱) 및 하윤호씨등 비슷한 연배들이 진출.

이들은 우승을 김달수씨(럭키)에게 뺏긴채 2위를 「형님먼저」의 원칙(?)에 따라 신병식등문(30)이, 3위를 함철씨(28)가, 4위를 하윤호씨(28)가 차지했다.

◇오는30일 國棋타이틀을놓고 大會戰을 펼치게될 曺薰鉉名人(右)對徐奉洙國棋。

일류대의 입시에서 거세던 京畿高바람이 바둑에서 몰아치자 관전자들은 『바둑이 신선놀음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수재놀음인것은 분명한것 같다』고 한마디씩.

이에앞서 지난10·11양일간 열린 단체전에서는 MBC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 大韓藥師會, 3위大宇, 4위 주식회사 漢陽의 순서였는데 漢陽은 작년에도 준우승을 차지한바있다.

霸王戰 멤버확정

○…曺薰鉉霸王이 5년간이나 타이틀을 보유하고있는 제18기 霸王戰의 도전자리그에 진출할 기사7명이 확정됐다.

이들은 전년도 시드잔류자인 姜勳4단, 金寅8단, 尹奇鉉8단, 河燦錫7단등과 이번에 새로이 예선을거쳐 진출한 徐奉洙7단, 徐能旭6단, 白成豪5단등으로 앞으로 풀리그를 벌여 도전자를 가려내게된다.

◇고바야시

◇趙治勳本因坊

中高級의 바둑講座

○…한국기원은 바둑을 처음부터 배우고 싶은 초보자에서부터 기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中·高級의 棋力소유자들을위해 바둑강의를 실시한다.

수준은 입문A반, B반(17~15급) 초급반(14~12급) 중급A반(11~9급) 중급B반(8~5급) 고급반(5~1급)으로 나뉘어 전문기사들의 지도를 받게된다. 수강료는 일반이 월1만5천원, 여성과 학생 1만원이며 신청서는 한국기원총무부(②9819)에서 접수한다.

名人戰에서도 好調

○…趙治勳本因坊에게 가장 까다로운상대인 고바야시(小林光一·30)9단이 제37기 本因坊戰의 도전자로 결정돼 오는 5월26, 27일 도전7번기의 첫국을 두게된다. 고바야시9단은 마이니찌(每日)신문이 주최하는 本因坊戰도전자결정 리그에서 林海峰9단을 눌러 6연승으로 남은 1국의 승패와 상관없이 도전자가 되었다.

趙本因坊과같은 기다니(木谷)문하생인 고바야시9단은 소년시절부터 趙治勳9단과는 라이벌이었으며 금년도 棋聖戰도전자리그에서도 趙本因坊을 꺾어 「趙治勳킬러」라는 말을 듣고있다.

역시 趙9단이 타이틀을쥐고있는 名人戰의 도전자리그에서는 林海峰9단이 4승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고바야시9단은 2승1패를 기록하고있다.

「名人戰全集」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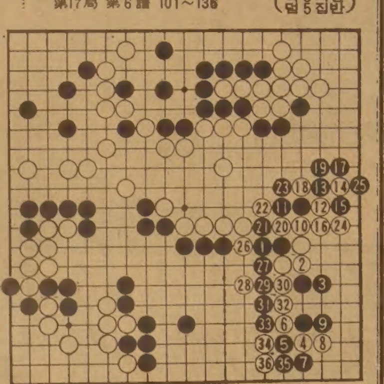
○…日本棋院의 역대 名人戰을 소개해온「日本名人戰全集」(趙南哲編·사진)이 제5권으로 완간되었다.

1974년부터 나온 이책은 名人戰의 3기를 한권씩 묶어왔는데 제5권은 제13기(林海峰對 石田英夫)、제14기(石田英夫對 大竹英雄)등 2기의 도전기를 싣고있다. 【法文社刊·3천5백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6譜 101~136 (갑5시간 덤5집반)

白(6段)徐能旭〈1勝3敗〉
黑(6段)姜哲民〈0勝5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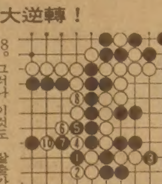
우선 눈에띄는 것은 우하측을 白36으로 막은데서 종국된 모습이다. 것으로 黑은 35쪽의 3점이나면 지의 7점이 죽게돼 있는 것이다. 말할것도없이 黑의 일대변괴이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런사태가 빚어졌나 알아보자. 당초 白2까지의 3점은 黑의 맹공을받고 거의 질식상태였다. 따라서 일단탈출을 보류하고 귀쪽에 白4로 붙여 변화를 꾀하는데 黑은 여기서 5로 6자리에 뻗어 白에게 귀삶이를 허용해도 거뜬히 이기는 판국이었고 또 黑7로도 34자리에 뻗어서 귀를 살렸더라도 승리는 부동의 것이었다.

그것을 무리하게 귀마저 잡으려는데서 黑은 탈을 자초하기 시작한것이다.

徐6단은 당초부터 옥쇄를각오하고 자포자기식으로 마구덤비고 몸부림칠 요량이었다. 일단 귀삶이를 남긴채白10 이하 18。 그러나 이것도 탈출가망이 없어서 黑23까지 공연한 발버둥? 그러나 사실은 白26쪽에 알궂은 맛이 도사리고 있을줄이야。 姜6단은 물론이거니와 徐6단도 그제야 겨우 일이 뜻밖으로 달라진줄 깨달았다。

아차、一大逆轉!



白26에서 28이 저절로 생긴 묘수。 이하 36까지 아차아차 하는사이에 일대역전극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36다음 참고도와같이 黑1、3은白4 이하8(도중黑9이음)로서 회돌이축에 걸린다。【一凡】

美프로野球 大記錄위업

메이저리그

美프로야구 내셔널·리그의 아틀랜타·브레이브스는 20일밤 홈구장에서 벌어진 신시내티·레즈와의 경기서 4-2로 승리함으로써 현대 메이저·리그사상 최초인 12연승 기록을 세웠다.

3만7천여팬들이 지켜본 가운데 벌어진 경기서 브레이브스는 2회초 레즈에 0-2로 리드당했으나 2회말 챔블리스、3회말라미레즈의솔로호머로 타이를 이룬후 플로들·워싱턴의 역전결승 3루타로 4-2의 역전승을 거두어 12승무패를 기록、선두를 쾌주하고있다.

美프로야구서는 현대와 같은 조직이 이루어지기전인 1897년 보스턴·브레이브스가 17연승을 올린적이 있다.【뉴욕AP聯合=聯】

한국일보

金準桓 화끈한 2點홈런

해태、롯데에 1次戰패배 설욕 2—1

◇決勝2點아치의 홈인 라이벌 롯데와의 2차전서 2회말 결승2점홈런을날린 해태의 5번金準桓이 趙昌秀코치(⑥), 동료 金鍾模외 환영을받으며 홈인하고있다. 【光州=聯合】

三星、凡失잦은 MBC大破 12—0

8승5패…단독首位 떠올라

해태·타이거즈가 처음 光州로 원정온 과자라이벌 롯데·자이언츠를 金準桓의 2점호머로 다운시키고 2-1로 승리, 釜山서 당했던 패전(14-2)의 분을 풀었다. 홈구장서 설욕을 다짐하며 21일 롯데와 두번째대결한 해태·타이거즈의 5번金準桓은 2회말 롯데에이스 盧相守를 강타, 중월선제2점의 홈런·아치를 홈팬들에게 선사했으며, 金城漢은 3회부터 선발 李相潤을 구원, 해태의 승리를 지켰다.

해태는 3회말 선두9번趙忠烈이 무구에맞고 나가 2死후 안타를날린 金城漢과더블·스틸로 홈을노리다 태그·아웃, 추가득점찬스를 놓쳤다.

롯데는 金城漢의 호투에눌려 6회초1死후 1번鄭學守의 2루타, 2번 權斗祚의적시타로 1점을얻는데그쳤다.

한편 三星·라이온즈는 처음 大邱로 찾아온 강적 MBC靑龍을 12-0으로 대파, 홈팬들의 갈채를 받으며 8승5패로 단독선두에 뛰어올랐다.

야수들의 5실책, 투·포수의 폭투와 패스트볼등 MBC의 수비범실로 三星은 안타수(10)보다 많은 12득점을올렸으며 MBC는 4차례나 병살당하고 자멸했다.

이날 釜山서열릴 예정이던 OB·베어스와 三美·슈퍼스타즈의경기는 비로 연기되었다.

◆광 주

	1	2	3	4	5	6	7	8	9	계
롯데	0	0	0	0	0	1	0	0	0	1
해태	0	2	0	0	0	0	0	0	X	2

▲홈런=金準桓(2회·2점·해태)

◆대 구

	1	2	3	4	5	6	7	8	9	계
MBC	0	0	0	0	0	0	0	0	0	0
삼성	0	2	2	2	0	0	5	1	X	12

▲홈런=鄭鉉發(8회·삼성)

李德姬 1회전脫落

美마스카린에 完敗 國際 女子테니스

【아멜리아 아일랜드(美플로리다州)20日聯合=聯】한국의 李德姬는 19일 美플로리다州 아멜리아 아일랜드에서 개막된 상금 25만달러의 테니스 대회 첫날경기에서 수지·마스카린에 2-0(6-4、6-2)으로 패했다.

전기중간순위

<21일현재>

팀	승	무	패
① 삼성	8	0	5
② 롯데	6	0	4
③ OB	7	0	5
④ MBC	6	0	7
⑤ 해태	5	0	6
⑥ 삼미	3	0	8

慶南 3區間서 1위

4·19기념 사이클

4·19기념 제15회 전국일주 시도대항 사이클대회 사흘째경기가 21일 大邱-金山 제3구간(169.5km)코스에서 열려 개인전서 慶南의 金鐵石은 3시간43분37초5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단체전서도 慶南이 11시간12분12초15로 1위를마크했다.

서울-金山간(498.6km) 종합기록에서는 慶南이 35시간47분28초78로 단체전 1위를 마크하고있다.

臺灣、中共참가封鎖

세계 여자소프트볼

【臺北20日聯合=聯】臺灣은 오는7월 臺北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여자소프트볼대회 개최와 관련、이달15일까지로되어있던 참가신청마감시한전까지 참가의사를 확인해오지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대회참가자격을 박탈할것을 제의했다고 이 대회조직위대변인이 20일 말했다.

캐나다 외환은행 불로아지점 개점 (627 BLOOR ST.W.)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은행은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아오며5월하순에는 불로아에 지점을 개설하여 교민여러분을 모실수 있게 되었읍니다.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배전의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 업 안 내

예금업무

정기예금(Term Deposit Can's U.S)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상
수표발행예금(Checking Account)
개인 체킹 구좌
당좌예금(Current Account)
저축예금(Saving Account, Daily Interest)
6개월, 1년, 1년반, 2년

송금업무

일반우편송금(Mail Transfer)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전신이용(금액이 크거나 지급을 요하는경우
온라인 송금
외환은행 본지점에 온라인·예금구좌를 개설한후 동 구좌로 자동 입금시키는 방법.

수출입 업무

신용장 개설(L/C Opening)
수출화환어음 매입(Negotiation)
상업어음 추심(D/P, D/A)
기타 수출입 관련 업무

대출업무

당좌대월(Over Draft)
일반대출(소비자금융 예금대출)
기업대출(중소기업 사업자금)
무역금융(수출입 관련 금융)

기타업무

신용조사 대행
과세및 경영 상담
기타 은행관련 부수 업무

장미 적금 안내

—교민여러분의 사업자금 주택마련 모국방문 등 목돈마련의 지름길입니다.
—적금 불입도중 필요하시면 불입액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융자해드리고 다른 대출도 쉽게 받으실 수 있읍니다.
—Post date cheque 를 보내주시거나 다른구좌(Saving 이나 Chequing)를 개설해 주시면 자동 불입시켜드립니다.

적금 불입 월부금표

계약고 \ 계약기간	6개월	1년	1년반	2년
500	81.44	39.68	25.84	18.92
1,000	162.88	79.36	51.68	37.84
1,500	244.32	119.04	77.52	56.76
2,000	325.76	158.72	103.36	75.68
3,000	488.64	238.08	155.04	113.52
5,000	814.40	396.80	258.40	189.20
10,000	1,628.80	793.60	516.80	378.40
30,000	4,886.40	2,380.80	1,550.40	1,135.20
50,000	8,144.00	3,968.00	2,584.00	1,892.00

본 점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 O Box 402 Tor. Ont. M5X 1E3

불로아 지점 533-8593
627 Bloor St. West, Tor. Ont.

캐나다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은행업무를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봉사해드리고 있읍니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2nd Fl) TOR. ONT. M6G 1L1
전화 : 533-9387

약 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 장 점

센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지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 LAKESHORE BLVD.W. WINDOW SHADE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영정 태권도장
1065 St. Clair W.
전화 : 652-0000 정 영수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분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전화 : 267-2292

미시사가한글학교
전화 : 822-6438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김미영한국민속무용연구소
전화 : 499-5079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안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3월말경에 Dundas와 Bloor사이 로상에서 본인 임동호의 여권을 분실하였기에 유감스럽게도 여권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바 혹 이름으로라도 분실된 여권입을 찾을수있을까 하여 광고를 하오니 협조바랍니다. 연락처 : 536－4039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장이 많음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전화: 534－5068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는
치과에서 일하실 Receptionist구함
전화 : 233－9454, 781－9591, 535－2798

Juice Bar에서(주방)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영어 못 하셔도 관계없음
전화 : 438－0403 6시이후

Gas Attendant구함
전화 : 782－6311 (Mr. Lee)

청소하실분 구함
전화 : 630－2450 (Mr. Cho)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입주하셔서 애기(2살반) 봐주실분 구함
(주 5일 화~토요일)
전화 : 536－5914 (9시 이후) 783－0683 (Mrs. 하)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일 현찰 지불
전화 : 922－3061 Mr. 김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꼭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DONUTS SHOP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실 여자분(Full Time)구함
전화 : 531－2689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홍), 531－0773(김)

유경험자 Cashier 구함
학생환영(Kingston Rd.×Woodbine)
전화 : 691－3666

Full Time 캐쉬어 구함
전화 : 923－9948 Mrs. 정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파트타임)
미시사가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822－4179

Mall 속에 있는 Ice Cream가게와 그로서리 스토아를 맡아서 하실분 구함.(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1184 Weston Rd.

신체 건강한 남자분으로서 피아노 수리, 재생, 조율등 전반적인 테크닉을 배우실분 구함.(Full Time)
Start Pay : $3.50(시간당). 전화 : 783－6871

---

1) 배우실 분
컴퓨터식자 · 사진식자 (한글타자 경험자면 더 환영)
2) 여름방학동안 Full Time 일할 학생구함.(24세 미만)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컴퓨터식자기 운영으로 인해 과거에 사용하던 사진식자기(SAKEN SPICA－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533－2364 Mrs. 김

몬트리얼에 있는 맥주와 포도주도 파는 그로서리 스토아
년 매상 : $235,000 아스킹 : $39,000+스탁
전화 : 1－514－932－6046(Mr.Kim)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가게 팝니다.
전화 : 656－5358(저녁 8시이후)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

1. 좋은자리에 새로 OPEN하는 DONUTS SHOP
현찰 $40,000 요구 리스: 20년 Rent: $2,300
아스킹 : $140,000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가게달린 빌딩 매매〉
경쟁없는 지역임. (칼레도니아 × 에그린톤)
2층에는 3베드룸 아파트와 2개의 부엌
큰 리빙룸과 큰 지하실
CASA 복덕방 Peter Chung
(B) 636－1504 (R) 635－8971
※영어로 문의하십시요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CN Tower에 가까이 있는 큰 주차장 딸린 식당(Tavern)매매
좌석 : 100석이상, 아스킹 : $180,000, Call Jim 596－6706
영어에 능한분이 연락주시기 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

1) 그로서리 (주매상 : $7,500) 아스킹 : $70,000
2) Fish & Chips (Yonge×Bloor) 아스킹 : $99,000
3) 건물 (Bloor × Christie) 아스킹 : $159,000
4) 건물과 식당 (Dundas－Hwy10) 아스킹 : $329,000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황 순 일 481－3443.

Pape Subway 근처에 좋은 장소의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아스킹 : $62,000 주매상 : $8,000
Carol Chao 596－8681, Julius Aloi Real Estate.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틀림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000, 아스킹: $35,000+스탁
전화 : 465－4385

PIZZA STORE 매매 (London, Ont.)
주매상 : $2,000이상,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까지
전화 : 1－519－681－7631(B) 오후 4시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Tuck Shop) 전화 : 842－2917

세탁소 팝니다. 그리고, Shoe Repair, Lottery Tickets, Rug Cleanig and Laundry
461044 Ontario Ltd. 전화 : 595－1570

좋은 위치에 있는 조그만 가게 Lease를 팝니다.
Smoke Shop이나 Dry Cleaning Depot. 하기에 적당함.
혼자서 하기에 알맞음. 아스킹: $3,100 전화: 431－1358

일손이 모자라는 관계로 이윤좋은 과일및 꽃가게를 급매.
주일은 휴업이고 6일 주매상 현재 $4,000~$4,500.
계속 주매상이 오르고 있으며 장비값만 $50,000이상임.
아스킹 : $48,000. 관심있으신분은 O·K오토바디 김희삼에게 연락 주세요.(Carlaw×Gerrard)
전화 : 251－9889(B) 242－4551(R)

★바쁜 쇼핑·몰안의 Food Store
★3개의 상점과 2개의 3BedRoom Apts와 3개의 (BedRoom Apts가 있는 2층 빌딩
Queen St. W. 에위치(Dennis or Sam)
전화 : 534－3089 or 466－9609

가정 형편상 급매
2층에 3베드룸과 뒷뜰에는 넓은 정원이 있읍니다. 가게달린 건물임.
$15,000 다운페이.
전화 : 242－3873 Miss. 오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단독 또는 공동으로 렌트 하실분
Young St.(로렌스×욕·밀 중간지점)
전화 : 481－3677 Frank

하우스 렌트

2 Bedrm－렌트 King+Dufferin
전화 : 536－4250(오후6시이후) 535－1251(낮)

집 독채 세놓읍니다.
방4개, 지하실 꾸며져 있음.(세파드+파머시)
전화 : 757－6334

방세놓읍니다.
◉다운타운지역 (Church × Dundas)
◉St.Clair × Weston 전화 : 763－328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482－0166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 한국일보 안내광고 *